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
도 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 풍족한 은혜를 더하시고,
영적인 열매들을 맺게 하시며 귀한 감사의 제물들을 더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이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
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17절

발행인 칼럼

감사의 나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수직의 감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1620년 12월 26일, 미국 동북부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하였던 청교도들의 넘치는 감사는 그들의 항해일지에 기록되어 있다. 평탄한 가운뎃의 감사가 아니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배였다. 그 같은 배로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나 그들은 작은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배의 항해속도는 시속 2마일밖에 되지 않는 느린 것이었는데 그 래도 117일간이나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였다. 항해하는 기간 중 두 사람이 죽었지만, 이들은 한 아기가 탄생하였음을 감사하였다. 폭풍을 만나서 중심을 잡아주는 돛대가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였다. 고통의 시간 속에 영국으로 되돌아가자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했고 수많은 시련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렸다. 그들은 잃은 것을 생각하면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남은 것을 보며 감사하였다. 이렇듯 감사로 역경을 이긴 것이 미

국을 세운 이야기이다.

수평의 감사는 어떤가. 미국인들은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미국처럼 감사(Thank you)가 입에 뱀 나라가 없을 듯하다.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Thank you"였다. 연말이 다가오니 모두에게 선물이나 큰 부담이다. 쇼핑물마다 사람들이 서로 나눌 '선물'을 잔뜩 쌓아놓고 손짓을 한다. 돈이 없이 누군가에게 선물 주기가 힘든데,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마음으로 부터의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선물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미국에는 마음의 모든 입으로부터 수평의 감사가 넘쳐난다. 아름다운 일이 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 너무나도 찾기 힘든 것이 수직의 감사이다. 수직의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은 멀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 존귀는 감사하는 자의 것이고 비천은 감사 없는 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

니하리라" (렘 30:19) 오늘 날 미국의 위기는 수직 감사의 위기이다. 사람을 너무 챙기다가 하나님을 잊고 있고, 기술을 지나치게 높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된다. G20 국가에 당당한 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방문한 뒤 깜짝 놀라며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K문화 K음식으로 세상을 평정하고 있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고 한편 걱정도 된다.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울려 퍼지던 나라에서 '사상과 이념이 만세'로 바꾼 것 같아서이다. 서로를 챙겨주던 '두레'의 나라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치닫는 것 같아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이다. 감사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감사하는 나라가 승리한다. 감사하는 나라가 행복하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북한이, G20이, 그리고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전쟁이나 경쟁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감사에 부지런한 온 세상 나라가 되길 이 감사절에 꿈꾸며 기도한다.

감사시

은총은 언제나 구름 위에서 빛나니 -팬데믹 후 첫 추수감사절에

해마다 11월이면
우리, 농부가 되어
들판에서 익은 곡식을 거두고
고향집 우물가 감나무에서 흥시를 따는데
보름달 감사가 바꾸니 가득이다



나상진

COVID-19로 집에 머물라,
모이지 말라, 입을 단아라,
한동안 교회당 문도 닫아야 했더니
전쟁같이, 흑사병같이 쓰러진 인생 660만 명
두려워 떨며 방문을 잠금 제자들 같았어라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시련도 끝이 있거니
드넓은 중남부 들판에 옥수수과 밀이 가득하고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맑고 드높아
새 땅, 새 들판에서 평화가 여여간다

이제 해방이다,
마음껏 예배하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팬데믹 후 첫 추수감사절,
은총은 언제나 구름 위에서 빛나니
어느 해보다 잘 익은 감사의 축제를 벌인다

(창조문예) 신인작품상 등단, 시집 《생각의 그물》(2015 세종도서 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 《배와 강물》, 에세이 《살림을 꿈꾸다》, 창작곡 음반 《즐거운 노래》 등, 국민일보 기독교교육 브랜드 대상,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재미시인협회 회원, 현재 오렌지카운티 살림교회 목사, Evangelia University 교수



시론 2면
이동진 목사



추수감사절특집설교 3면
홍귀표 목사



8면
기독교 명저의 초대
이윤석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미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호텔식 하숙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필수전기열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추수감사절

— 모든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시편 100:4



김성국 담임목사

(718) 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시론

꽃병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수요일 오전에 성경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데 이어서 간단히 식사를 나눈 후에는 2부 순서로 찬양 노래 교실을 한다. 신앙고백서들과 요리문답서 등 교리 공부로 진지했던 시간 후에 식사 나눔과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목회를 은퇴하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은퇴 출신의 목사님 부부께서 인도하는 이 시간에는 찬양도 부르지만 동요와 건전가요, 기억의 숲에 누워있던 한국과 외국 가곡도 불러와 선율과 화음으로 만난다. 그래서인지 주로 70대를 넘어서신 교인들이 함께 하는 수요일 오전은 추억이 묻어나오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태원 사고와 같은 소식들로 무거워진 마음들에 오랜만에 이틀간 내린 비로 촉촉해진 마음 때문일까 지난주 선곡된 '꽃병'이라는 노래가 이 시대를 향한 교회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 같았다. "생각나나오 아주 오래전 그대 내게 주었던 꽃병 / 흐드러지게 핀 검붉은 장미를 가득 꽂은 꽃병 / 우리 맘이 꽃으로 피어난다면 바로 너겠구나 / 온종일 턱을 괴고 바라보게 한 그대 님은 꽃병.. 어느 모퉁이라도 어느 꽃을 보아도 나의 맘은 깊게 아려오네오 / 그대가 준 꽃병 생각나나오 아주 오래전 그대" 그대를 꽃이라고 노래한 시인은 많았지만, 이 노래 가사는 그대가 '꽃병'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부흥사 무디가 꽃병을 거론했었다. "회개란 꽃병 속에 넣은 주먹과 같다"고 외친 무디는 이렇게 덧붙였다. "아가리가 좁은 꽃병 안에서 주먹을 움켜쥐면 손을 뺄 수 없다. 옛 관습과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주먹을 펴고 손을 빼내라고 회개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찰스 카우만은 이런 꽃병얘기를 남겼다. "어떤 사람이 경매장에서 싸구려 꽃병을 샀다. 그는 그 꽃병 안에 값진 기름을 넣어 보관했다. 그래서인지 꽃병은 기름을 다 비운 후에도 향내가 여전했다. 근데 어느 날 꽃병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데 그 깨진 조각마다에서는 고소한 기름 향기가 퍼져나왔다."

활짝 핀 꽃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회개와 향기를 가르쳐주는 '꽃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노래가 깃가를 떠나지 않는다.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며 준비하지는 심포지엄과 세미나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리서치 통계가 제공되기도 하고, 발제강연과 논찬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장에 참석하기도 하고 내용을 전해 듣기도 하는데, 주제가 '꽃'에서 '꽃병'으로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바닥에 꽃병 떨어져 깨지는 소리도 들려오고, 꽃병에 넣고는 빼지 못하고 쥐고 있는 주먹 쥔 손을 여전히 풀지 않고 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크고 강해지려는 욕구가 담긴 꽃병 앞에서 이 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박수치는 소리가 가득한 모습들.

교회들이 장미, 백합, 수선화, 집시꽃 그리고 수많은 꽃들에 관심을 갖다보니 저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로 자랑하는 꽃밭이 되어버린 것 같은 시대 속에서 구약 에스라서는 보잘것없이 던져진 창고 속 그릇들이 얻게 된 성전 회복의 기쁨을 말하고 있다. 바사의 고레스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왕궁 창고에 있는 전리품으로 가져간 성전 그릇들을 다 갖고 가라고 창고문을 열어 주는데 금그릇은 거의 다 사라지고 30개 밖에 남아있었지만 은접시 천 개를 비롯해 오천사백 개의 그릇을 가져가라고 한다. 금그릇은 바사의 어느 귀족 집의 부엌에 머물러있게 되지만, '그보다 못한 그릇'들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그릇으로 회복되게 되는 사건 속에서 꽃병이 오버랩되어 보인다.

금그릇, 세상의 고귀한 가치는 바사국 귀족집에 그냥 살아라. 먼지 덮여 버려졌던 보잘 것 없는 그릇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에스라의 메시지가 이런 세상에 비취오는 한줄기 소망이다. 창고에서 나와 귀족 집 식탁에 오른 것을 자랑하는 금그릇같은 신앙을 부러워했던 교회들은 이제 버려진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 소망의 빛을 찾아가야 한다. 그 소망이 야말로 '꽃병'을 아름답게 해줄 진정한 '꽃'이 아니겠는가! 그 꽃병같은 교회로 회복해야 하지 않은가! 할로윈 데이를 지나고 추수감사절과 이어서 상업화된 성탄 장식들이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계절, 온통 '꽃'들로 덮여오는데 어디선가 양희은의 '꽃병'노랫소리가 들려온다. djlee7777@gmail.com

바다보면서 "멍 때리기", 정신 건강에 도움 준다!

BBC, 최근 각광받는 정신 건강 증진 방법 '블루스페이스' 소개

10년 전에 등장한 "블루 스페이스(강이나 바다 같은 파란색 공간)"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이론이 최근 정신 건강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배는 바다 위 바위 사이를 매끄럽게 질주했다.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에 나온 여섯 명은 "마음 챙김"을 시작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이들은 커다란 돛을 단 120피트(37m) 길이의 요트, 아이린호로 영국은 콘월 해안을 순항 중이다." 최근 10년새 이 같은 마음 챙김 훈련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보통 가정이나 심리치료사의 상담실에서 훈련을 진행하지만, 이처럼 바다 위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다.(The surprising benefits of blue spaces)



아이린을 운영하는 영국 자선 단체 '시 생추어리'는 마음 챙김 치료를 해양 활동과 함께 하면 정신 건강 측면에서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콘월 해안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블루 웰스'를 운영하고 있다. 블루 웰스란 강이나 호수, 바다 같은 블루 스페이스에 들어가거나 그 인근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프로그램을 찾는 이용자 중 많은 이들은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배 위에서 치료사의 치료를 받는 한편, 심리 상태를 관리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프로그램에 등록한다. 자선단체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을 받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전직 경찰관인 스티브 리홀스 역시 '시 생추어리'의 향해 프로그램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불안감을 다스리고 있다. 그는 "절벽과 다리에서 자살하려는 사람들을 말리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 일이었다"고 말했다.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봅니다. 제 PTSD 대부분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때문에 생겼죠." 리홀스는 지난 2014년 정신 건강 문제로 경찰 일을 그만뒀다. 그리고 지금은 주로 콘월 강이나 만에서 카누를 타며 시간을 보낸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정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바다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눈으로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분비, 혈류, 혈압, 뇌 활동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자연 속 미생물과 접촉하면 면역 체계가 훈련된다. 피부와 기도 및 내장에 유익한 미생물 군집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호수나 강 같은 블루 스페이스가 녹지보다 훨씬 더 장점이 크다고 말하고 있다.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에서 건강 심리를 연구하는 케이트 캠벨은 "블루 스페이스는 일상의 번잡함에서 우리의 마음을 떼어내고 머리를 식혀준다"고 말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 공기의 잔 내, 발가락 아래에서 모래가 부서지는 소리...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이 우리를 이완시키고 긴장을 크게 해준다." 블루 웰스 개념은 약 10년 전 서식스 대학 연구팀이 2만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생기는 감정을 연구한 것에서 나왔다. 연구팀은 100만 개 이상의 답변을 수집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블루 스페이스에 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블루 웰스를 주기 위해 전문가들 중에는 도시에서 물이 많은 공간을 재발견하거나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24억 명이 바다에서 100km 이내에 살고 있다. 강이나 호수에 사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접근성이나 오염때문에, 사람들은 블루 스페이스의 장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6년 유럽에서 '블루 웰스'라는 연구 프로그램이 시작

됐다. 도시 공간에 '블루 인프라'가 있을 때 건강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는 전염병학자, 공중 보건 전문가, 도시 계획가 등이 대거 참여해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다. 영국 플리머스에서 진행된 프로젝트에선 낚은 도심 공간을 대중에게 개방된 블루 스페이스로 바꿨다. 강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거나 작은 부교나 앉은 곳을 설치하는 등의 작은 변화로도 지역 사회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은 이러한 변화 이후 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갖게 됐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답했다.

앤디 손튼은 바다 생추어리 향해 자격을 갖춘 치료사다. 그는 향해 참여자들이 향해 중에 무엇을 얻고 어떤 것을 향후 스트레스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영국 건강관리국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그는 자연에 초점을 둔 자선 단체의 "포괄적 접근 방식"이 기존 치료법보다 저렴하고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바다의 색깔과 움직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규모에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집으로 가져갑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사고 다음주 신문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휴간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성 ■ LA지사장: 이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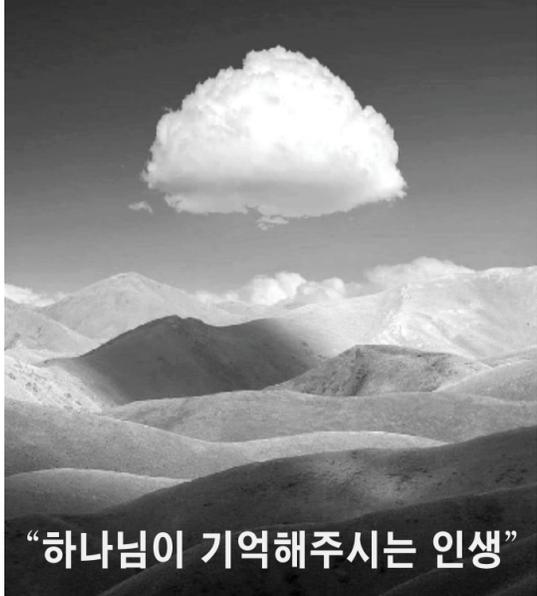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4,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2022년, '하나님이 기억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사는 멋진 삶"



"하나님이 기억해주시는 인생"

올 한해동안 여기까지 오느라,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다가 올 남은 인생도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온통 감사로 가득한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해주시며 돌보시고 인도해주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장로교회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주일에배 한국어 • 11:00AM / EM • 2:00PM / YOUTH • 11:00AM Children • 2:00PM 금요모임 금요찬양 NOW(New Our Worship) 매월 셋째 금요일/ 7:30PM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 213.447.3118 / 담임목사 이동진 / www.sunghwachurch.org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 명의 나병환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교훈은 치유뿐만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명의 나병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가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시에 다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되었더라도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과 가까워지기를 꺼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손가락 몇 개를 잃었거나 얼굴, 팔 또는 다리가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병의 치유는 기적적인 축복이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에 불과했으며, 그들의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의 많은 격려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을 고쳐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더 큰 격려와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면, 그들이 치유함을 받은 후의 삶에도 계속 주님과 연결되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격려와 인도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한 번의 도움이 아니라 매일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을까요? 감사가 그 열쇠입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축복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질병과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식을 하고, 정기적으로 의사 검진을 받고, 의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물론, 신체 운동, 건강한 식사 및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 (Robert Emmons)는 감사하는 마음과 건강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임상 시험에 따르면 감사의 실천은 사람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혈압을 낮추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며 보다 효율적

자는 주님의 치유에 대한 확신을 받았습시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다시 다른 질병에 걸리더라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치유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시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심령으로 생활할 때, 주님께서는 치유 뿐만 아니라 치료사 되신 주님이 대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를 드릴 때,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치유와 건강을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치료의 기쁨이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걱정이 더커서 감사를 할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치유의 축복을 받은 직후, 감사를 하지 않은 그들은 치유자와의 연결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근원이자 모든 축복의 근원인 주님 자신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열 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은 치유자이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족들, 혹은 친구들을 만나 치유의 기쁨을 나누

다해도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이 남아있었고 앞일에 대한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신체의 일부가 변형된 모습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치유 된 후 정상적인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다면 감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치유자체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은 복잡합니다. 우리의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축복을 주시고 여

인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 자신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치유의 근원이시며 모든 축복의 근원인 주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한 번 육신의 치유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삶에서 필요한 축복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은 한 가지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의 근원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축복을 받은 후에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주님의 축복은 그 축복 하나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마다 감사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필요한 축복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여러 해 동안 봉사한 한 의료 선교사는 이른바 진행성 실명 환자가 있는 지역에서 봉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상적인 시력으로 태어났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시력을 완전히 잃어갔습니다. 이 의료 선교사는 이질병에 대한 치료법을 개발하여 이 질병을 퇴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치료를 받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쓰는 방언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내가 당신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라고 표현했고 그 말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눈을 고쳐 준 선교사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고쳐 주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esfcross@yahoo.com



감사하는 삶에 주어지는 축복
누가복음 17:11-19

추수감사절 특집설교



홍규표 목사
(KAPC 총회장, 시카고다민족교회)

인 수면을 촉진 할 수 있다."

감사는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을 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강하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울증을 제거합니다. 감사는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악마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영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다른 다른 질병으로 다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상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치유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했을 때, 그들은 치유의 축복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치유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린

인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 감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모든 축복의 근원에 계속 연결됨

치유된 나병환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를 드렸을 때,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배은망덕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고침을 받은 다른 아홉 명의 나병환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들은 치유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치유의 기쁜 소식을 먼저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 나누고 싶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치유해 주신 분께 감사하는 것을 나중에 미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체의 변형 된 부분을 보고 여전히 우울해서 감사할

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시다, 그러나 그는 치유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 전에 먼저 치유자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그후로 계속 주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받은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 축복을 기뻐하고 누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의 근원인 주님께서 믿음을 인정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계속 주님의 축복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사람은 축복을 통해 받은 긍정적인 것에 마음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

러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해도 그 축복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거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한꺼번에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지라도 여전히 문제들 속에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필요만 생각하면 축복을 받아도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미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열 명 중 한 명이 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자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이끌렸습니다. 주님은 그의 신앙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3년 6월 30일(30일 포함) 졸업 예정자로 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분.

고시과목

- a.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4과목)
- b.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1. 구약주해: 이사야 52:13 - 53:12
- 2. 신약주해: 히브리서 10:19 - 25
- 3. 논문제목: 포스트 펜데믹의 개혁주의 교회론을 논하라 - 메타버스와 성찬
- 4. 설교본문: 구약 - 야모스 8:11 - 14, 신약 - 딤후 4: 1 - 5
- 5. 제출고시과목에 대한 규칙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제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 a. 레터(8-1/2 X 11) 용지를 사용할 것.
 - b. 폰트 사이즈는 11이며, 줄간격은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사이즈이며 Double Space)
 - c. 논문과 주해는 각각25매 내외로 작성(표지와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10매 정도).
 - d.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할 것.
 - e. Pdf 파일을 보낼 때에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 이름도 본인 이름 및 과목 주제이름을 사용할 것. (예: 손기성구약주해.pdf)

면접고시

서류제출방법

- a. 모든 응시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3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3년 3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c. 합격자 발표는 47회 총회기간(5월23일 - 26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증서를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일자: 2023년 5월 22일(월) - 23일(화)
장소: 퀸즈장로교회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시무)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제출서류

-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23년 6월30일 이전(30일포함) 졸업 예정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 b. 신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c. 소속노회장 추천서 1부
-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년도와 교회, 집례자 등) 1부
- f. 명함판 사진 2장
- g. 고시료: \$100(USD) 서류접수 후 통보

참고사항

-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박희근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22,23일)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
 -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은 고시장소에 입성하기 전 지울 것.
 - 2. 시험 중 화면을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는 경우 퇴장 당할 수 있음.
 -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준비할 것.

제출처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주소 : 21-01 124th st. College Point, NY 11356
전화 : 917-254-0887 / 이메일 heepark91@gmail.com

기타문의

고시부 부장 : 손기성 목사 (Rev. Kisung Son) 663927@gmail.com
고시부 서기 : 박희근 목사 (Rev. David H. Park) heepark91@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홍규표 목사
서 기 : 안병권 목사
고시부부장 : 손기성 목사
고시부서기 : 박희근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하나님의 뜻을 아시나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크

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감사가 인생의 행복을 키웁니다. 축복의 문을 엽니다. 기적을 낳습니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지만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어렵습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수년 동안 인내하고 기다려도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데 감사해야 합니까? 평생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사람이 하루 아침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예고도 없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매일 자폐아 자녀와 씨름하며 힘겹게 살아가는데도 감사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새끼줄 꼬이듯이 꼬이고, 실타래

영키듯이 엉켜 있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과연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는 가능할까요?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give thanks For everything)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 자체, 즉 해고당한 일에 대하여, 암에 걸린 일에 대하여, 차 사고가 난 일에 대하여, 부도난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동차 사고로 오른발을 다쳤지만, 왼발을 다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 직장에서 해고당했지만,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 암에 걸렸지만, 전이가 되지 않아서 감사...” 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조금 나빠졌기에, 나의 병이 조금 차도가 있기에

감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give thanks IN everything)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 고통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8)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 나를 정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도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아직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내 고통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겨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언제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8)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절기!

‘2022년 추수감사절’ 맞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공개적 감사 나눔 축제

1620년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하여 메이플라워호라는 작은 배를 타고 두 달 여의 대서양 항해 끝에 미국 메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 도착했다. 플리머스에 가면 그때의 환경을 재현해놓고 배를 똑같이 만들어 놓았는데 청교도들 102명과 선원 약 30명이 타기에는 작은 배였다. 신대륙에 도착하자 맞이한 겨울에 102명의 이민자들의 절반가량인 46명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죽게 되었다. 겨울이 지난 봄, 이들은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가을이 되어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다. 겨울이 지나자 모든 것이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그 해 가을에는 대풍작을 이루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추수한 곡식들과 사냥한 칠면조를 준비하여 추수 감사드리는 축제를 3일간 열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감사주일의 시작이다. 그들의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고난 속에서 생존하게 된 것을 감사한 것이다.

점점 더 미국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수많은 다른 전통과 상업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을 잃게 만드는 상업주의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은, 그 피해가 상당하다: 1869년 9월 24일, 금요일 미국의 월가에서 주가 폭락으로 인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그러나 1941년 추수감사절이 법정으로 11월 4번째 목요일로 정해지면서, 금요일에 쉬거나 쇼핑을 함으로써 지금의 블랙 프라이데이 관습이 생겨났다. 추수감사절 가족들과 친구들과 보내야 할 시간이 쇼핑으로 인해 줄어들고 추수감사절의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싸게 파는 물품을 사는 행위로 바뀐 것이다.

유에스아이 투데이에 따르면, 약 20억 파운드의 터키가 2020년 추수감사절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고 한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추수감사절에 약 4억 파운드의 으깬 감자와 3억 파운드의 터키 속에 넣는 음식물(Stuffing) 쓰레기로 버려졌다.

물론 대가족 혹은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추수감사절에 음식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사실 첫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 한 것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다음으로 맛있는 추수감사절 음식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추수감사절을 과식하는 날 혹은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날로 여긴다.

그 다음으로는 미식축구이다. 예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이 1876년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 대회가 열렸지만, 1920년대에 미국 프로 미식축구 연맹이 생기면서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프로 미식축구 경기를 해왔다. 올해에도 추수감사절 당일에 미식

축구 3경기 정도가 중계될 것이다. 스포츠 전문 신문인 스포티코(Sportico)에 따르면, 매년 추수감사절에 평균 약 삼십삼만 명이 프로 미식축구 시청한다고 한다. 그러나 미식축구는 대부분 혼자 보거나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이기에,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다. 이처럼 점점 프로 미식축구는 추수감사절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되어왔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화해와 나눔과 축제이다!

추수 감사절에 들뜬 신앙으로 절기에 도취함이 아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갈등이 있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우리들의 신앙 역사 속에서 화해의 은혜가 삶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추수할 수 있도록 풍성케 해 주심과 부요케



해 주시는 축복)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이웃과 나눔으로 나타나야 한다.

삼사가의 상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의미가 완성된다. 선교나 전도가 입으로만 풍성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나눔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선교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감사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모두 다 내려 주시는(약 1:17)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며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한다. 감사는 특별히 함께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시편 136편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1-3절)

시편 136편은 공동체적 감사를 촉구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초대한다. 승리한 스포츠 팀의 팬이나 승리한 정치 후보의 지지자처럼,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공동으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서 다른 이들에게 우리의 감사를 듣게 하고 그들도 그리하게 하면 우리 마음은 서로 감사로 고무된다. 다른 시편에 나온 다윗의 감사 시를 보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시 34:1-3)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다른 이들이 “듣고 기뻐하게” 하면 그들이 함께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격려한다. 가족이 함께 감사절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자비하심에 같이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우리 혼자서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개적인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로 우리가 표류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다른 이들의 공개적인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상기하도록 도와준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찬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891, www.thankingchurch.com 6858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jcusa@ehoo.com / www.lajc.com Tel: (323)8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수-일 학교 교인: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평일오전예배: 오후 12:00 영어권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젖어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8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아)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세례기도회(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jpc.org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후 1:30-수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hel@hkc.org / www.b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사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실비치사랑교회 (Seal Beach Sp-R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p> <p>Tel: (310)749-4756 실비치 리저널 클럽하우스 3100(주말) Clubhouse 3 room 1(수)</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737-3009, Ce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연합교회교회협동목사) 상일사역: (월-금)오전 9:45 (본당) 다미 사역: 오전 9:45 (101호)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밖으로 여성성도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상담사역 4. 네트워킹 사역</p> <p>www.elpisfamily.org Tel: (213)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연세대학교: 오후 3:55-24시간 오픈</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www.ju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다미 사역: 오전 9:45 (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찬양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본당) 세례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전 9:30 수요요말: “아성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p> <p>Tel: (213)500-2348, dcb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종교개혁은 교회의 개혁이다.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개혁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교회의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먼저 교회를 진심으로 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 개혁을 부르짖으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몸 된 교회를 찢어 놓는다면 개혁은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교회를 운명처럼 사랑하는 순전한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기초한 신령한 은혜의 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보좌 교회 앞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의 가까이 만나고 그의 전적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신령한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을 때, 교회를 향한 모든 개혁적인 소원과 소망도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항상 주님의 교회

한테 싶은 소리 들으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다. 순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자녀를 기르면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가르침 앞에 잘 빠지고 신경질을 낸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완고한 모습이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한다. 교회가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모두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일을 복잡하게 가져가지 말고, 단순하게 가져가야 한다. 요즘 교회는 너무 복잡하다. 열심히 교회 나오면 다른 프로그램 할 것이 없다. 심방을 갈 필요가 없다. 매주 볼 수 있으니까, 매 수요일, 주일, 금요일 저녁, 새벽에 모이니까 달리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에 자주 오니까 할 것이 없다.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옛날에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은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마다 신앙생활이 훨씬 더 복잡해져 버렸다. 복잡한 만큼 단순 무식, 무모할 정도의

자세이다. 그렇지 않은가? 한 사람, 신앙인의 삶을 표면화시켜보면 아주 단순하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마지막 천국 환송식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성도의 평생의 소원은, 그저 교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천 일보다 나으며,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하고 좋은 장막에 거함보다 낫다는 사실이 분명한 성도의 모습이다.

3.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교회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한 교회도 저절로 세워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다. 무형의 교회는 영원

차각하며 사는 것이다. 영혼을 쪼먹는 대단한 착각이다.

복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분명해야 한다.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새벽과 주일날 들려지는 그 말씀 한절 한절을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다. 교회 가는 일에 늦어지면 장로님이라 해도 그 벌을 면할 수 없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알고 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말씀의 홍수임에도 열매를 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 중심에 교회 중심적인 삶의 결여가 존재한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 라고 묻는다. 그러면 우리가 술집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귀신이 아닌 이상, 영으로만 어찌 예배를 드리겠는가? 영혼의 그릇인 몸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으로 나아올 때,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몸의 순종을 통해 시작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중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현재 구약성경을 읽는데 레위기의 제사법이라든지 레 11장의 먹지 말라고 한 동물이나 생선, 곤충 등은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금지한 돼지고기도 먹고 추어탕도 먹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늘날에 필요 없는 그 말씀은 없애 버려야 하지 않지요?
- 실비치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주로 3가지입니다. 제사법, 민법(사회법) 도덕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법이나 민법은 그 당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던 그 당시의 초기 국가 형태의 특수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법이나 민법은 오늘의 우리의 상황에서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계명같은 도덕법은 아직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이상숭배 하는 이방인과 구별 신약의 복음을 위한 영적 준비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의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오류가 있거나 구약의 율법은 적용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말씀이니 이전 성경에서 빼버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의 많은 것들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들은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이나 의식법 등 정결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대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히 9:10)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히 10:1)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11장의 음식물 규례는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구별되게 하여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기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상숭배를 하는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교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대개 교제는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 규례는 이스라엘에게 성결의 도를 가르쳐 신약의 복음을 위한 영적 준비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그 말씀들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 영적 의미와 교훈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개혁

교회를 복되게 세우는 개혁을 위해, 먼저 단순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여 몸을 드러보기를 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자증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복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종교개혁, 교회사랑, 교회개혁 2

를 어린 자녀가 어머니를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함으로 따라감으로 하늘과 땅의 신령하고 기쁨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1. 교회에 단순한 순종

인생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맡기는 데 있다. 맡길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다. '시키는 대로 해 보는 것'이다. 이것을 복종이라고 말한다. 거기서 더 성숙하면 복종을 지나 순종에 이르게 된다. 복종하여 '시키는 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 말씀만 나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자원하여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복종과 순종의 그 단순함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운행하신다.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변해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될 때, 신앙은 아름다운 것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린이가 같은(Childlike, Not Childish)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단순해지고, 아이가 되고, 다툼이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후다닥 싸우고 회중하고 웃는 곳이 어린이가 싸움이다. 저도 아버지한테 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 부르시면 즉각 그 품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아버지

산을 옮길만한 믿음의 능력도 찾아볼 길이 없어져 버렸다. 교회 중심의 삶, 교회로 나아오는 단순함, 교회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결단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회 중심의 단순한 믿음 위에 복잡 분주한 세상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2. 교회 중심의 신앙 방향

복된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하면, 그 방향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신앙의 방향이 분명하면 현재가 어려워도 미래를 향한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좋을 뿐, 미래의 약속이 없으면 참된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미래가 없는 사형수에게 제일 좋은 것을 마음껏 제공 하는 것은 불행한 관용일 따름인 것과 같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회복과 축복의 방향은 무엇일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다.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잠시 잠깐의 생명과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지향하며 나아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복된 성도는 넘어져도 교회 쪽으로 넘어진다. 복된 성도의 삶이 교회와 함께 하는 삶임을 너무나 잘 아는 신앙의

할지 몰라도, 지상교회는 다르다.

지상교회를 완전하고 무흠한 공동체로 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의 마음으로 붙어 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교회가 증거 하는 지상교회의 현실이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함부로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로 떠들지 않게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며, 교회를 어머니의 품과 같이 기쁘게 대하게 된다.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은, 주의 몸 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4. 섬기는 교회를 분명하게

교회의 본질은 예배이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반드시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는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대사회에는 몇 분의 선호하는 스타 목사님들이 앱으로 연결되어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서 그저 원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정적인 동의만 있으면 큰 은혜받았다고 쉽게 말한다. 문명의 도움으로 인해 그런 은혜를 받을 수만 있으면 장소는 상관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불 속에서 속옷 차림으로 발가락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해도 쏟아지는 말씀 속에 스스로를 예배자로

말시대이다. 종말시대의 특징은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광변(狂變)할수록, 더욱 더 내가 섬기는 바로 그 교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헌신해야 될 한 교회가 분명해야 한다.

5. 교회에 몸을 드러보라

교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섬겼던 분들의 신앙을 보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당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이었다. 더불어, 저들이 확신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예배당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다.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작은 몸품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생각하였으며, 눈에 보이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피 같은 물질도 아낌없이 드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삶 전부를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었다. 이들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마침내 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은혜의 전성시대-믿음의 명문가문을 열어주시며, 그 헌신을 되갚아 주셨다.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당연하지 않은 <감사>

11월은 미국도 한국도 대학 입시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한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

정기적으로 비슷한 나이의 자녀를 키우는 친구들과 화상 통화로 이런저런 근황과 아이들을 키우며 겪는 고충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임을 갖는다. 부모로서 우리는 나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고마움은 모른 채, 부모가 자기들에게 해주는 것 너무 당연하고 해주지 않는 것만 서운하고 화를 낸다며 감사를 모른다고 서로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미팅을 마치고 아들 라이드를 가려하는데 메시지가 온다. 11월 글을 <감사> 주제로 부탁한다는 메시지다. 첫 수확의 감사를 드린 큰 절기인 추수 감사절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누려는 뜻일 것이다. 운전을 하며 '감사함'의 반대말을 생각해 보니 미팅에서 애

기한 '당연하다'이다. 당연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감사 할 일이 없다. 당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저 찰나이고 잊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행이 찾아온다. 이렇게 물질 만능의 현대사회는 점점 감사를 잊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상에 수저 계급론을 한 번씩 들어 보았을 것이다. 이 새로운 개념은 부모의 힘, 배경, 재산들이 2세에 대물림되는 것을 두고 급수저, 은수저, 심지어 동수저와 흙수저라는 단어들 등장하고 MZ세대라 불리는 우리 자녀들 사이에 퍼져있다. 수저 계급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영어식 표현에서 시작됐다. 과거 유럽 귀족들이 은수저를 사용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 대신 유모가 젖을 은수저로 먹이던 것을 얘기한 것이다. 부모님께 감사함보다 태어나보니 급수저가 아닌 자신의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쓸쓸한 시대를 반영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탈무드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며,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당연함의 불행이 아닌, 감사로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정말 부자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감사 할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성경에는 어떠한 특별한 감사하라고 하지 않는다.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당연하지 않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 해가 다 가기까지는 아직 한 달이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11월을 감사한다.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을 주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감사와 함께 입으로 행동으로 감사를 전하면 좋겠다.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중 모두 '실리', 중화권 중시 경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양측 모두가 실리를 취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이나 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위기, 미·중 통상 갈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갈등 관리 필요성 공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대외적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블룸버그 행사에서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두 지도자가 매우 복잡한 (양국)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정상은 고위 관리들에게 계속해서 소통할 임무를 부여했다"며 "개방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계속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그러나 대중 고용 관세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다"며 "아직 해결책은 없고, 우리는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후변화 협상 참여를 끌어내고,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심기를 대외적으로 알리게 했다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이 우크라이나에서의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에 반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 설명에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담기지 않았지만, 이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고려한 조치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전날 기자들에게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리커창 총리가) 주권과 핵 위협에 대한 무책임함을 언급하고, 일부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시 주석도 3연임을 확정 이후 주요 2개국(G2)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알릴 기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싱크탱크 스텝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우선순위는 회담에서 무엇을 직접 얻어내는 것보다는 회담을 통해 세계에 (외교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텀하우스 유지에 선임연구원은 "미·중 관계의 긍정적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실질적 불만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긴장 온도를 낮추는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중국 측에서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에 배석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4일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미·중 관계, 세계 평화 발전과 전망 등에 대해 솔직하고 심층적이며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며 "이번 회담은 깊이 있는 소통, 명확한 레드라인 설정, 충돌 방지, 협력 검토 등 당초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왕 부장은 또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양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 "미·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리는 데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관영 매체와 전문가들도 세계 양대 경제대국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15일 사설에서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만나는 모습은 위기와 도전으로 긴장된 세계 정서를 완화시켰다"며 "미·중 관계 역사의 중요한 만남으로 기록될 것"이라

고 평가했다. 신경보는 "양국 정상이 얼굴을 맞대고 각자의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긍정적인 신호"라며 "미·중 관계 안정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격파만 막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일 뿐 근본적인 대결 구도가 바뀐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 긴장이 다시 고조될 여지가 많다. 일각에서는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대중 강경 행보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선거 승리 후 대만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수치스런 경기장' 카타르가 감춘 숫자들

세계인의 축제장 일가, 이주노동자의 무덤일까.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는 가운데, 개척국 카타르를 향한 인권문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15일(한국시간) "잔인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우리가 축구에만 집중하길 원한다. 하지만 월드컵은 (경제적) 손익계산서나 명예로운 토너먼트 명부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실에서도 측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수치스런 경기장: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가 숨기고 싶은 숫자'를 열거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부문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앞서 2010년~2021년 인도·파키스탄·네팔·방글라데시·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약 '6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가디언은 2019년 심장병 학회지 연구결과를 빌려 더위로 인해 카타르에서 사망한 네팔의 노동자가 약 '200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카타르와 FIFA가 월드컵 준비 기간에 사망한 노동자의 공식 숫자는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월드컵 관련 사업으로 인해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정확한 수는 '???'다. 진짜 숫자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카타르 월드컵 개최가 확정됐을 때 FIFA가 카타르 당국에 요청한 노동인권 관련 조항이나 조건도 '0건'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연맹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카타르의 느슨한 노동법 등으로 착취·학대당한 이주노동자는 최고 '10만 명'이고, 특히 가사 및 경비 노동자들 다수가 하루 '14~18시간' 동안 노동했다. 인권 및 노동권 조사기관 에퀴팩은 최근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질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일한 케냐의 한 노동자가 2년 넘게 추가수당 없이 14시간 동안 노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카타르에서 죽거나 다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FIFA가 '4억4000만 달러'(약 5765억원)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 총상금과 같다.

여성 차별도 꼬집었다. 카타르에서는 혼외 성 관계를 가진 남녀는 형법 281조에 따라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 법이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HRW는 "카타르 경찰은 성폭력 신고를 한 여성들을 종종 믿지 않고, 여성이 남성 범피자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나 암시만으로는 여성들을 기소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카타르 형법 제296조는 남성을 유혹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게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에게 징역형 '5년'을 선고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카타르의 언론자유는 180개국 중 '119위'다. 중동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이지만 여전히 월드컵 기간 기자들은 감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이번 월드컵에는 약 2000억 달러(약 261조 9940억원)가 쓰였다. 이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약 110억 달러보다 20배 가까운 수치다.

미·러 정보수장 앙카라서 회동

미국과 러시아 정보 당국 수장이 14일(현지시간) 튀르키예(터키)에서 만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과 러시아에 구금된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BBC, CNN 등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만나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 대변인도 타스통신에 미·러 정보수장의 만남에 관해 "그런 협상이 있었다"면서 "미국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회동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양측은 러시아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미국 여자프로농구(WNBA) 선수 브리트니 그라이너와 간첩죄로 수감 중인 전 미국 해병대원 폴 웰런의 석방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출신 무기 밀매상으로 미국이 구금 중인 빅토르 부트를 그라이너·웰런과 맞교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뤄진 미국과 러시아 간 최고위급 회동이며서 전쟁 종식에 관한 얘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NSC 관계자는 "번스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그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파국 후과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위기 고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미리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CNN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해결하는 것에 열린 입장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고, 설리번 보좌관이 푸틴 대통령의 최고위 측근들과 비밀 회담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주 울겨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가 우크라이나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협상 불가론'을 외치며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 드미트로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외교위원회에서 "러시아는 군 재정비를 위해 휴전을 이용하려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해야만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 인구 80억명 넘었다 '인류에 중대 이정표'

유엔 인구국(UNPD)은 15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구가 80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인구 80억명 돌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인류 발전에 이정표가 세워진 것"이라며 "이는 지구에 대한 인류 공동의 책임을 고려하면서 다

양성과 발전을 축하하기 위한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인류의 다양성을 기념하고, 공통된 인간성을 깨닫고, 기대수명을 늘리고 산모와 아동 사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린 보건 분야 발전에 경탄한다"고 밝혔다.

지구 인구는 1974년 40억명을 넘어선 후 48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명을 돌파한 것은 11년 전인 2011년이다.

유엔은 현재 인구가 90억명이 되는 것은 15년 후인 2037년으로 예측된다며 "세계 인구의 전반적인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1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구 증가율은 1960년대 초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둔화해 2020년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유엔은 기대수명과 가임연령 인구 증가로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약 85억명, 2050년에는 97억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후 2080년 약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100년까지 이 인구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유엔의 전망이다.

올해 기준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인구가 23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남아시아가 21억명으로 26%를 차지한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인도가 나란히 14억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추월해 최대 인구 국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도 1만명 해고한다... '역대 최대 규모'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다. 뉴욕타임스는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아마존이 이번 주부터 약 1만명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감원은 기술직과 소매 부문, 인사 담당 조직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아마존의 직원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계약직을 포함해 전 세계 총 150만명에 달한다. 이번에 감축되는 인원은 1%가 되지 않지만, 인원수로만 놓고 볼 때 아마존 역사상 최대 규모다. 아마존은 지난달 소매 부문 채용을 멈춘 데 이어 지난 3일엔 다른 부문까지 고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채용 중단에서 더 나아가 인력 감축까지 나섰다.

아마존의 이러한 구조조정은 코로나19 기간 직원 수가 대폭 늘어난 데다가 부진한 실적 전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아마존은 코로나19 기간 직원을 두 배로 늘렸다. 배달 급증으로 인력을 대거 채용한 것이다. 실제로 2019년 말 아마존 전체 직원 수는 79만 8000명이었지만 2021년 말 160만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고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직원 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로 아마존은 4분기 매출을 1400억달러~1480억달러로 예상했는데, 이는 시장 기대치인 1551억5000만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주가는 급락했고 시가 총액은 31개월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아마존의 이 같은 대규모 감원 조치는 최근 다른 테크 기업의 움직임과 비슷하다. 메타는 지난주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1000명 이상을 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이후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3700명을 해고했다. 애플과 구글 등은 아직 대량 해고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신규 고용을 하지 않기로 하고 채용 동결에 나선 상태다.

V. 신론 (6)

4) 창세기 1:1과 1:2 사이의 공백설 (Gap theory)

뉴 스코필드 스타디 바이블 (The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1967년)은 창 1:1과 1:2 사이에는 수백만년의 공백이 있다고 주장했다. 스코필드 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씨름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에는 하나님께 대한 마귀의 반역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역한 첫번째 지구를 심판하셨고, 그 결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차다"고 한다. 그리고 창 1:3-2:3의 내용은 24시간의 주기의 하나님의 두번째 창조라고 한다.

발견되어진 수백만년에서 혹은 수 억년이 된 화석은 창 1:1의 처음 창조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창 1:2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without form and void), 흑암(darkness)이 깊은 위에 있고" 묘사에서,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묘사는 당시 지구의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먼저 지구를 만드신다 (1절), 그 다음에 빛을 지으셨다면 (3절), 2절에는 어두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2절의 표현들은 현재 창조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묘사한다. 이것은 악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는 말은 창조 기간동안 어두움이 있었다는 말이다. (5.8,13,18-19) 그곳에 악이나 혹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존재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말은 단순히 아직 지구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창 1:31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칠때까지 이 땅에는 악, 혹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5) 창조의 6일은 24 시간인가? 아니면 긴 시간인가?

노지구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의 6일이 24시간이 아니라, 수백만년도 될 수 있는 긴세월이라고 한다. 이 문제는 복음주의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은 논쟁이 있다. 창조의 6일이 24시간이 아니라, 긴 세월이라고 보는 견해의 주장은 히브리 단어의 "날(יום)"이 성경에 긴 세월로 묘사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창 2: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나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 여기에서 옴이라는 말은 6일간 창조 사역 기간 전체를 말한다.

그리고 날 (יום)이라는 말이 어느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시 20:1,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또한 전 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리고 또한 구약에서 "날"이라는 말을 축복이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나 창 1장의 날을 24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왜냐

4.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계속적으로 존재하도록 붙잡고 계시며, 보호하시며, 주관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1) 보존 (Preservation):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모든 것들을 원래의 본질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보존하신다. 히 1:3,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에서 "만물을 붙들다" (he upholds the universe by the word of his power)에서 "붙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 16:33).

우리는 과학적으로 태양, 습도, 온도, 계절의 변화, 흙의 양분 등이 풀과 나무가 자라며,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이유들을 습도와 온도 및 기압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신다고 한다. 이 모든 자연적인 사건의 원인 (cause)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그 본질 그대로 유지 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trine of God)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론 (The doctrine of man)이 나온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처음에 나오는 말이,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한다" (Without knowledge of self, there is no knowledge of God;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는 말이 나온다. 신론과 인간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조직신학에서도 신론을 공부하고 난후에는 인간론을 공부하는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 1: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존재는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이다. 인간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A.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형상" 혹은 "모양"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형상과 모양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호환 될 수 있는 같은 의미의 말이다.

형상 (image, 히브리어 tselem)은 무엇을 대표 (represent) 하거나, 혹은 무엇과 비슷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모양 (likeness, 히브리어 demut)은 유사성을 의미한다.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유사한 것을 말한다 (not identical, but similar).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다양하게 설명한다. 필자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

벌코프는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한다. 물론 벌코프는 17세기 하란 개혁 신학자 헨리치 디스트 (Henric a Diest)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narrow sense of God's image)은 의와 참된 지식과 거룩 (엡 4:23)이며, 인간의 타락으로 전적으로 잃게 되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broad sense of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적 능력, 감성, 도덕성, 창조성, 관계성, 등인데, 이것은 타락 후에 많이 왜곡되고 타락, 변질되어졌지만 그러나 완전히 상실하지는 아니했다.

다음호에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의 구성 본질 등에 대해 생각하겠다.

KHL0206@gmail.com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11)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하면 1) 창 1장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날이 24시간임을 암시한다. 2) 태양이 4번째 창조되는데 3일째 창조된 식물들은 빛이 없이 오래 살 수 없다. 물론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수백년 혹은 수천년간 식물들로 살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3)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의 날은 분명히 24시간을 의미한다. 출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4) 막 10:6, 예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말씀하셨을때, 아담과 하와가 창조로부터 수백만년 후에 창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창조시에 (창조의 첫 주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날 (יום)의 길이는 24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하나님의 창조 교리의 결론: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롬 11:36)

다" (φέρω)는 "지탱하다" 의미이다.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현재분사형)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의 만물을 그 본래의 특성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관여하신다. 골 1:17,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켜느니라"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의 창조물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붙잡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수 없다.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실때 주셨던 특성을 본질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게 하신다. 물과 나무와 꽃들이 그들의 특징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물의 특성이 그대로 있고, 나무와 꽃의 특성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섭리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피조물의 새로운 분자와 원자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드신것들을 보존하신다.

2) 협력 (Concurrence):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 세상에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 135:6-7,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불, 우박, 눈, 안개, 들풀, 바람, 식물, 동물, 등,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 인간이 볼 때, 우연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생한다.

서 원인 (cause)이 되시기 때문이다.

인간사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민족들을 키지게도 하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고 다시 끌러가게도 하시며" (욥 12:23). "나라는 여호와와 것이요 여호와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다" (시 22:28).

우리의 삶의 모든 면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존재한다. 우주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모든 능력과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통치자들의 결정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3) 통치 (Government):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고,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시 103:19,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단 4:35,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엮은 것 같이 여가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언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고전 15:27,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며, 발생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진다.

VI. 인간론 (1)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신론 (The doc-

Advertisement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World-reaching Church Eastern (NY, NJ) Church). The ad features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es, phone numbers, and website URLs for various congregations across the Northeast and Midwest regions.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1)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죄 죽임에 관하여, On Mortification of Sin"

9. 죄를 죽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 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련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없다면 이 책의 결론으로 제시하려는 것들은 당신은 실천할 수도 없다.

1)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죽여라

주님의 보혈의 피는 죄로 병든 영혼들을 위한 그분의 주권적인 위대한 치료제이다. 그분의 피 안에서 당신이 산다면 당신은 죽지만 결국에 가서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죽이는 일에서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과 방법을 취해야 하는가?

(1)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기억하라.

그 목적은 당신을 율아매는 정욕을 믿음을 통해 죽이는 데 있다.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죄와 싸우는 일에도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충분히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빌 4:13)을 잊지 말라.

비록 극도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위해 예비된 풍부한 은혜, 힘의 보고, 도움들을 바라보라.(요 1:16; 사 40:28-31) 그리고 그것들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라.

주님이 보좌에 오르시어 회개

개게 하는 임금과 구주가 되었음을 생각하라.(행 5:31) 회개케 한다는 것은 죄를 죽이게 한다는 의미이다. 죄의 죽임이 없는 회개란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분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요 15:3)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는 풍성한 은혜 위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 주님께 거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롬 11:19-20) 우리가 처진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분은 힘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잡아 승리자 이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롬 8:38)

그 분은 나의 영혼의 메마른 토양을 저수지로 만들고, 나의 목마르고 빈약한 마음을 샘물로 만들어 주신다. 확실히 그 분은 가증스런 정욕과 불같은 유혹으로 가득 찬, 용이 거하는 나의 마음을 그 분 자신을 위한 정원으로 만드신다.(사 35:7) 우리에게는 결코 낙심이 있을 수 없다. 만약 당신이 불신앙으로 주저앉고 주님께 가서 떠나서 거지된 치료책을 구한다면 당신은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은혜의 효과는 오직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만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도움의 은혜를 기대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라."(합 2:3) 고통과 당혹감 속에 있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은 때에 올 것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시 123:2)을 향하듯이 주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는 태도

로 그 분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분명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사 7:4,7-9) 그 분의 손을 통해 그것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올 것인지 기대하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사 7:9) * 첫 번째 질문: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토대 위에서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하는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죄를 죽일 수는 없다. "모든 중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골 1:19)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요 1:16) 새 사람의 속성은 마리가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과 힘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속사람이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는 것은(골 1:11)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엡 3:16-17) 이 일은 성령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령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을 받기 위한 모든 기대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에 대한 기대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노력과 싸움은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결국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 그러면 기대를 갖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 첫째, 하나님의 오른 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부드러움, 그리고 인자하심을 생각하라. 확실히 그 분은 곤궁에 빠진 당신을 불쌍히 여기신다. "어미가 자식을 위로할 것이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사 66:13) "자기가 시련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련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히 2:18)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

은혜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온다. 대제사장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한다면 우리의 정욕과 죄는 더 쉽게 파괴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스스로 해왔던 가장 엄격한 고행보다 더 빠르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죄를 죽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과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결코 죄의 정욕과 타락으로 말망하지 않는다.(사 55:1-3; 계 3:18)

나) 둘째, 당신을 세워주시고 당신에게 도움의 보증이 되었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각하라.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이슬과 비처럼 그분의 도움의 은혜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임한다.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에게 주님은 온전하고 신속한 도움을 베풀어 주신다. 다음으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들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기 때문에 결국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의 도움들을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그 분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세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보혈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라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멸할 수 있는 토대이다.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은 죄를 죽이기 위함이다. 주님은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15면으로 계속)



인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1)

심,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치유

한 부모들에게 특별히 힘이 필요한 만큼 자연과 벗하는 기쁨을 가질 때 사역에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보면서 또 맛있게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 년이면 격월로 해서 6번을 근교로 나가 좋은 공기 쉼터에서 일박 혹은 이박을 보내며 서로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참고가 될까 하여 일박일 경우의 일정을 소개합니다. 방 배정이 끝나는 대로 새로 오신 분들과의 어색함을 떨기 위해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늦게 오는 분들도 있으니 샌드위치 준비해 자유롭게 먹고 폭포든지 바닷가든지 주위 산책을 나갑니다. 돌아와서 공작시간을 갖는 데 손으로 된기를 해낼 때 성취감과 더불어 힐링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필수로 합니다. 주로 간단한 장식품이지만 때로 만두나 김밥 만들기 대회 참여자 모두가 심판이 되어 1, 2, 3등을 정해 상품을 전하는데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승부욕이 발동해 남자분들도 전월 참가합니다. 저녁 식사로는 영양요요 혼자서는 해먹기 힘든 메뉴로 정하고 돌아가면서 부엌에 들어가 봉사합니다. 식후엔 넷센스게임이나 윗놀이등으로 마음껏 웃으면서 한결 가까운 사이가 되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후 충분히 찬양을 울린 후에 차분히 예배를 드리는 데 일반적인 설교로 끝내기보다는 돌아가면서 설교와 연결 지어 삶의 이야기 혹은 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쯤이면 다른 데서는 꺼내기 힘들었던, 마음속에 눌러 있던 무거운 짐들이 나옵니다. 내 입으로 그 응어리들을 토해낼 때 치유와 회복으로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부부가 다른 길을 가야 했던 경우... 한국에서 막 오신 분과 행복을 약속했던만 같은 언어, 같은 동족이라도,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뼈가 굳어진 사람들끼리의 결합은 국제결혼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절감하게 되어 결국은 ... 사연 없는 사람이 없으니 서로를 보듬어 주는 눈길과 함께 끄덕끄덕 열심히 들어줍니다. 이때 인도자는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다음날 밝은 아침을 맞이하는 시간 참석 후에는 자유롭게 쉬거나 산뜻한 공기를 마시며 걷는 시간을 가진 후 마무리 식사하고 삼삼오오 같은 지역으로 향하는 차를 타고 다음 달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비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필요한데 주위에 도움을 주는 분들에게 세금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출에는 음식비와 상품비, 때론 외부 강사사레비 등이 있고 숙박비, 혹은 장소 대여비는 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행여라도 부담되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면제해주고 여분의 금액이 있을 경우 구호금이나 선교금으로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결국 삶의 무거운 짐을 털어낼 길은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우리 인도자들이 할 일은 그야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with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Danjok, Gongmei, Baskin, Bannell, Boston, Saeseong, Alkan, Anger, Yeongsang, Killen, Winstone, Tacoma, and others.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감사할 때 가벼워지는 십자가

아프리카에 간 미국 선교사가 어느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강이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주민들이

모두 머리에 돌을 이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강 한가운데 가면 물살이 어찌나 센지 돌을 지고 가지 아니하면 떠나

러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급류가 있습니다. 이 인생의 급류에서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돌 같은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 어깨에 매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두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자신의 두 제자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 장소에 이르러 랍비는 제자들에게 각각 십자가 하나씩을 건네주면서, 자신은 이 길이 끝나는 곳에 먼저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진지 하루만에 길 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제자는 이틀날 저녁이 되어서야 길 끝에 당도하였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랍비의 발밑에 내동댕이치며 불

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저한테는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 주시다니요! 제가 이제야 온 것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썼기 때문이거든요." 제자의 불평을 듣고 있던 랍비는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그러자 "설마 무게가 똑같았는데 저 친구는 아주 쉽게 지고 갔고, 저만 찢찢매었다는 것입니까?" 랍비가 그에게 타 이르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자에게 있느니라. 네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있는 동안 감사하며 기쁨으로 지고 갔기 때문에 그 감사가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 준

거야.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지고 갈 수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면 할수록 십자가는 더욱 무거워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면 그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영광스런 삶인 것입니다.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약 1:12)

songpak@hotmail.com

2022 KAPC 세계선교회 중남미 선교대회 및 이사회 총회 성료

제7대 이사장 오세훈 목사, 부이사장 장성철 목사 선출

2022 KAPC 세계선교회 중남미 선교대회 및 이사회 총회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그랜드비유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돼, 제7대 이사장 오세훈 목사, 부이사장 장성철 목사를 선출하고 브라질노회 3인(오기곤 목사, 이종일 목사, 최은성 목사)과 중남미노회 장영서 선교사를 파송했다.

개회예배 및 저녁 집회

8일 오후 3시 한세영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기도 오건 목사, 설교 홍기표 목사 '시련의 때에 부르는 찬송'(행 16:16-26), 축도 장영서 목사가 맡았다.

이어 오리엔테이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뒤 드려진 저녁예배는 이윤석 목사(브르클린제일장로교회)의 사회로 김성일 목사(교단총장) 기도, 오세훈 목사(전 총회장) 설교, 장영호 선교사 광고, 유재일 목사(앵커리지열린교회) 축도로 진행됐다. 이날 오세훈 목사는 '주님을 시련케 하는 선교사'(고전 16:15-18)란 제목으로 "오직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이 되어, 주님을 온 맘 다해 섬기고 어디

를 가든지 화목케 하는 선교사가 돼라"라고 말씀을 전했다.

선교사파송예배

둘째 날 오전 예배는 장성철 목사(보스톤장로교회)가 기도했으며 장성훈 목사가 '화로다, 나여'(사 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날 저녁 8시 선교사파송예배가 드려졌다. 임철성 목사(시카고헤브론교회)의 사회로 드려진 본 예배는 엄수용 목사 기도(아르헨티나 중앙교회)와 윤정환, 남상진 집사, 박경미 선교사의 특송에 이어 유재일 목사(앵커리지열린교회/6대 이사장)가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사명자의 삶'(딤후 2:15)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결국 말씀 중심의 삶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증거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선교사가 되자"라고 강권했다. 이날 권면에 나선 장영호 선교사(아르헨티나 선교사)는 "선교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알

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고 자기 희생과 헌신의 있어야 하며 비전과 열정의 삶을 살아가기 바란다"고 권면했으며 이윤석 목사(브르클린제일장로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보고와 간증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일하는 것을 느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사역의 큰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며, 교단 교회들이 항상 동참하고 있다는 확실한 사실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한세영 목사(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의 광고가 있던 뒤 전 총회장 김영수 목사(상파울로사랑교회)의 축도로 파송감사예배를 마쳤다.

선교보고 및 폐회예배

셋째 날 오전 예배는 임철성 목사(시카고헤브론교회) 사회로, 임철성 목사 기도, 한일철 목사(그린스보로장로교회)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창 39:20-



세계선교회 중남미 선교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왼편은 7대 이사장 오세훈 목사.

23)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홍기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폐회 예배는 김영수 목사가 "나를 보내소서"(사 6:1-8)의 제목으로 설교한 뒤 유재일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이날 동안의 낮 시간을 통해 세미나도 진행됐다. 세미나는 '남미선교 동향 및 전략분석'의 주제로 장성철 선교사(브라질), 김연수 교수(전 KWMA 국제총무), '다음세대 선교전략'(심효식 선교사), WMS의 현재와 미래(장성철 목사)가 각각 강의했으며 이후에 이어진 남미선교 전략회의를 통해 지덕진(브라질), 최은성(브라질), 이종원(브라질), 장영호(아르헨티나), 이제석(볼리비아), 김임수(아르헨티나) 선교사의 사

역보고가 있었다.

세계선교부 사역

세계선교부(WMS)는 1978년 총회 선교부로 시작돼 2004년 총회에서 WMS(World Mission Society)를 신설하기로 하고 2005년 출범했으며 현재 107가정의 파송 선교사가 소속되어 있다. 지난 회기는 WMS 6대 이사장 유재일 목사, 부이사장 이길호 목사, 서기 한세영 목사, 부서기 이윤석 목사, 회계 장성철 목사, 부회계 임철성 목사가 이끌어 왔으며 7대 이사장으로 오세훈 목사 부이사장으로 장성철 목사를 선출했다. 올해 주요 활동상황으로는

선교지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를 도왔으며 선교사들의 총회 참석 비용도 일부 후원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선교지를 돕기 위해 지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했으며 우크라이나에 긴급 후원금으로 \$28,829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한인세계선교사 복지지원 재단인 KWCMF와 MOU를 맺고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토록 했으며 한국세계선교협회의(KWA)와도 업무제휴를 했다. 또한 GMS, 고신 선교회, 합신 선교회와도 제휴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Table with 5 columns and 4 rows of church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강남중앙감리교회', '군포제일교회', '금란교회', etc. Each cell contains a pastor's photo, name, and contact details.

동부교계 기사판

토론토큰빛교회 부목사 청빙

토론토큰빛교회(담임 노희송 목사)에서 부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한다. 1. 사역 분야: 장년 교육과 교구 사역 2. 자격 조건: △장년 교육 개발 경험이 있거나, 관련 학위가 있으신 분 △이중(영어/한국어)언어로 교육이 가능한 분 △캐나다 거주 및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3.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각 1부, 추천서 (목회자 2인 각 1부) △학위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서류전형 통과자는 면접 일정과 함께 개별 공지 예정)

▲문의 및 서류제출: 인사위원회 김대웅 장로 daikim0113@gmail.com

뉴저지길교회 찬양사역자 청빙

뉴저지길교회(담임목사 양혜진)에서 찬양사역자를 다음과 같이 청빙한다. 사역: 수요 오전 기도회와 주일예배에서 찬양 인도 주소: 493 Main St. #2F FortLee NJ 07024

▲문의: 201-937-5775

뉴저지한소망교회 유아/유치부 사역자 청빙 [Part Time]

뉴저지한소망교회(담임 정세훈 목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아/유치부 사역자를 청빙한다. 1. 자격 △정규신학교에서 M.Div 혹은 기독교교육전공 과정 졸업 혹은 재학중 △유아/유치부 사역에 소명과 비전, 열정과 은사가 있으시며 경력이 있으신 분 2. 사역내용 △주일예배 인도 및 말씀 전달 △교사교육 및 기도 모임 진행 △PTA 정기모임 주관 △절기별 행사주관(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3. 제출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 1부 △추천서 2부

▲문의 및 서류제출: hoperecruitcmte@gmail.com (이메일로만 제출 가능, 마감 2022년 12월 31일)

36회기 뉴저지교협 이취임식 “공감과 공유로 공조하는 교협”

신임 회장 박근재 목사 각 분과 중심의 사업 펼칠 예정

36회기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가 “공감과 공유로 공조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범했다. 36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이 11월 14일(월) 오후 6시 뉴저지연합교회에서 열렸다.

2부 이취임식은 신철웅 목사(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직전 회장 고한승 목사가 신임 회장 박근재 목사에게 교협기를 전달했다. 고한승 목사가 감사의 이임사를 했으며, 박근재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박 목사는 에스더서를 읽으며 당시 이스라엘의 위기가 오늘날 팬데믹으로 인한 오늘날의 교계의



뉴저지교협 이취임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어려움과 겹치며 “공감과 공유로 공조하는 교협”이라는 표어를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36회기에 예정된 주요 사업은 연례

사업으로는 신년하례식(1/23), 부활절새벽연합예배(4/9), 호산나전도대회(6/23-25, 강사 이동원 목사) 등이다.

36회기는 분과 중심의 사업을 펼친다고 각 분과별 사업 내용들을 소개했다. 특히 박 회장은 교협회관 마련을 위한 비전을 밝히며 “미래의 뉴저지를 방문한 선교사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센터, 개척교회 예배공간 할

용, 이단대책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강조했다. 축사를 통해 하사무엘 목사(뉴저지한인은목회 회장)는 “선배로서 다시 당부하는데 적 몇던 힘까지 최선을 다하면 배후에 주님이 계신다”고 부탁하며 “하늘나라 구원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세워진 교협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부탁했다.

또 홍인석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는 축사를 통해 “사람을 모으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박근재 목사가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해야 할 시기에 회장이 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좋은 결실이 있는 한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학생들과 담당 전도사들이 호산나청소년대회 회복을 기대하는 상황 가운데, 36회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했다. 신임 회장 박근재 목사는 직전 회장 고한승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어 이정환 목사(전 회장)가 축도 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교협은 증경회장단을 소집하여 교협회장후보 추천을 진행했다

뉴욕교협 증경회장단, 교협회장 후보 이준성·이종식 목사 추천

증경회장들의 1인 1후보자 추천 방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

뉴욕교협(회장 김희복 목사)은 11월 11일(금) 오전 11시 교협회관에서 ‘회장후보공천’을 위한 증경회장단을 소집해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와 이종식 목사(메이사이드장로교회) 2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이 회의에는 20명의 증경회장들이 참석해 약 30분간의 견을 나눈 후 1인 1후보자 추천 방식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했다. 투표에 앞서 회원들은 선관위가 미리 배포한 ‘별도 시행 세칙’이 헌법과 선거 세칙, 만국 통상법에도 없는

회원의 기본권에 저촉되어 불법이라는 의견과 유인물대로 시행하지는 의견으로 자유 토론을 펼쳤으나 의장 김원기 목사는 공천을 위한 비밀투표를 진행 시켰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위원장 정순원 목사)에 따르면 이날 회원들에게 배포한 ‘별도 시행 세칙’은 ‘48회기 총회에서 단일 후보 사퇴로 인하여 선거 세칙 16조 2항에 의거한 증경회장단의 후보 공천을 위해 세칙 16조8항’에 의하여 마련됐음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영의 복음 뉴욕세미나에 참석자들이 사진을 촬영했다

성령의 복음 뉴욕세미나

한국교회여, 다시 부흥으로!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와 아멘넷(대표 이종철) 주최, 한국기독교사연구소와 작은교회연구소가 주관한 성령의 복음 뉴욕세미나가 ‘한국교회여, 다시 부흥으로!’라는 주제로 11월 15일(화) 오전 10시 퀸즈장로교회 양순관에서 열렸다. 김성국 목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박영규 교수(전 총신대 총장대행, 명예교수)의 세미나가 진행됐다. 박영규 교수는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많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침체의 원인과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한국교회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이번 기회에 교회사 측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세미나는 진행됐다. 박교수는 “교회 위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다른 기회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서 목회자나 교인이나 교회 모두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성령에게 물어야 하고 교회사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외형적인 성장이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먼저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서 은혜를 받으면 교회가 일어나 외형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 영적으로 목회자와 교인이 깨어있으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따라온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므로 아무 곳이나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릎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영규 교수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다. 그의 저서 ‘성령의 복음’ 책을 전달했다.

(홍현숙 기자)



뉴욕심포니오케스트라가 음악회 연주를 진행하고 있다

제1회 뉴욕대한민국음악제 개최

조국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끓어오르는 음악제

제1회 뉴욕대한민국음악제가 11월 13일(주일) 오후 7시에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렸다. 음악제는 대한민국음악제 재단(이사장 김영덕 박사),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총회(총회장 김남수 목사)와 뉴욕지회(지회장 남태현 장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남수 목사와 김영덕 이사장이 대회를 맡았다.

이번 음악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과 활력을 잃어버린 한인사회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감동의 기회로 기획됐다. 허연행 목사는 “팬데믹이라는 환란의 강을 지난 이들이 음악회를 통해 지친 마음들이 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음악제 이름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듯이 조국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끓어오르는 음악회였다.

음악제 초반에는 뉴욕의 여류시인 광상희 권사의 ‘통일이여 오소서’라는 시에 ‘가고파’를 작곡한 김동진 선생이 작곡한 작품으로, 실황으로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통

일의 염원이 가슴 깊이 사무치는 ‘겨레의 찬가’가 초연됐다.

또 음악제를 끝내며 애국가를 작곡한 세계적 거장 지휘자 안익태 선생이 민족의 발자취와 수난 그리고 환희를 그린 대 서사시 ‘한국 환상곡(Korea Fantasy)’이 연주되고 합창됐다.

총 감독과 지휘는 LA 국립 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한 박동명 감독이 맡아 폭발적인 지휘를 선보였다. 반주는 70명의 뉴욕심포니오케스트라(음악감독 신동기 목사)가 맡았으며, 합창은 200명의 연합합창단(음악감독 이준희)이 했다.

이 외에도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데이빗 김 연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 바리톤 라차드 젤로(Richard Zeller)와 테너 칼튼 모(Carlton Moe), 파파로티 콩콜에서 우승한 소프라노 민한별, 떠오르는 신인 바리톤 이준희 등이 출연하여 스키티쉬 환상곡, 헨델의 곡, 그리고 가곡들을 들려주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제3대 김광선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욕효신장로교회 제3대 김광선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행복한 교회”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김광선 목사)는 제3대 김광선 담임목사 위임감사예배를 11월 13일(주일) 오후 3시 본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날 김광선 목사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위임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신장로교회에 대해 다섯 가지 “말씀에서 활력을 얻는 교회, 예배의 벽간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에 영적 고향이 되는 교회, 젊은 세대에게 자부심이 되는 교회, 지역사회에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며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며 당회와 깊이 소통하고 성도의 의견을 들으며 다음 세대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치열하게 애쓰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목사는 당회원에게 전달할 자그마한 상징적인 선물을 준비했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둘이서 겨야는 모습을 표현한 ‘화복의 십자가’였다. “목사는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옆에서 끌어안는 자이다. 당회와 함께 끌어안고 성도들 하나 하나를 살피어 목회의 사각지대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교회, 앞선 자들이 먼저 섬기고 높은 자들이 가장 먼저 낮추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며 잠재력이라고 모든 세대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당회원과 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부 예배는 이용호 목사(노회 위임국장)의 사회로 기도 김홍석 목사(늘기쁨교회) 성경봉독 박영수 목사(아름다운제자교회 담임), 연합찬양대 찬양, 말씀 김정규 목사(인천환엘교회 원로)의 순서로 진행됐다

다. 김광선 위임목사 부친인 김정규 목사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렘 4:1-6)” 제목의 설교에서 “뉴욕효신장로교회는 과거에 뉴욕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초대 담임 방식각 목사는 대뉴욕지구 미국교회로부터 탁월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주었다. 오늘 새로운 은혜의 여정을 출발하는 뉴욕효신장로교회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목한 가정과 같은 교회, 잘 가르치는 학교와 같은 교회, 병원 같은 교회,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뉴욕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위임예식은 위임국장 이용호 목사 인도로 위임목사와 교인 서약이 있는 후 위임국장 이용호 목사의 위임기도와 공포가 있었으며 부노회장이 위임패를 정광희 목사(총신 동문 회장)가 축하패를 증정했고 김덕원 장로(위임예배 준비위원장)는 위임목사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권면은 노회장 Jack Van Dyk 목사(위임목사에게)와 효신장로교회 원로 방식각 목사가 담당했다.

이어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담임), 류용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담임) 축하영상 후 축사는 뉴욕장로교회 김학진 목사(위임목사에게),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교우에게)가 담당했다. 공은빈 헬리스 목사, 축도 황동익 목사(뉴비전교회 담임)의 순서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 추수감사예배 및 송년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는 추수감사예배 및 송년회로 11월 7일(월) 오전에 개신교수도원수도회(원장 김에스더 목사)에서 모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동문들이 대면으로 모인 뜻 깊은 자리였다. 회장 박성원 목사(더나눔하우스 대표)의 사회로 드러진 예배에서 동문 김길홍 목사가 기도했다.

동문인 김창길 목사(뉴저지장로교회 원로목사)는 고린도전서 15:10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7번 감사와 은혜의 말씀을 전했다.

연세대신과대학장과 연합신학대학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방연상 학장이 축사와 학교소식을 영상으로 보내주었으며,

김영호 목사(미동부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동문들의 소식 및 광고에 이어, 메릴랜드에서 사역하는 장재웅 목사(위성톤하늘비전교회)의 축도로 1부 추수감사예배를 마쳤다. 2부 친교 시간에는 노순구 목사(리버델교회)가 식사기도 후 개신교수도원수도회 넓은 정원에서 따스한 햇살에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병서 목사의 폐회 기도로 2022년 동문회의 막을 내렸다.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아직 미등록한 동문들은 동문회장 박성원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동문회장 박성원 목사 718-683-8884

(정리: 김재상 기자)



새생명비전교회 창립13주년 기념예배에서 김영미 교수와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다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창립기념 감사예배는 초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 창립13주년 감사예배가 13일(주일)에 열렸다. 이재형 목사 사회로 시작된 2부 예배는 창립기념 음악회로 열렸다.

김영미 교수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불렀으며 교회중창단과 ‘시편23편’을 그리고 성가대와 ‘생명의 양식’과 ‘주기도문’을 불렀다. 김영미 교수(한국종합예술학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교회가 창립된 줄 믿는다. 오늘 드린 찬양은 오늘 모인 성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음을 믿는다. 우리들의 모든 삶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오시는 날까지 승리하는 삶 사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강준민 목사는 ‘예수님의 신부(엡 5:25-27)’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초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초심은 처음 먹는 마음이며 순수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초심을 잃어 버리게 되어 교만한게 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창립기념감사예배는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첫째 예수님은 교회

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둘째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신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은 양육하고 보호해주는 사랑이다. 사랑은 아끼이며 아낌은 키움이며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회는 교회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선교사 파송식도 함께 열었는데 김동욱, 신명은 선교사를 튀르키예로 파송하는 예식을 가졌다. 파송식은 선교사 소개, 안수식, 파송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김동욱 선교사는 “선교사로 파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족을 민들레 가족이라 명명했다. 민들레 씨앗은 바람이 부는 대로 가서 꽃을 피우게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성령의 바람 따라 주님의 복음의 씨앗 뿌리기 위해 민들레 가족이 되었다. 무슬림 땅에서 그리스도 꽃향기 바라며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미 교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른 뒤 강준민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김영대 김순옥 목사 부부 자서전 출판 기념예배

“행복한 가정 ... 결혼 50주년, 주님께 감사”

김영대 김순옥 목사 부부 자서전 ‘행복한 가정’ 출판 기념예배가 12일(토) 오전 11시 JJ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김영대 목사는 “결혼 50년이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가장 큰 축복과 감사는 큰아들 성수와 둘째 인수를 주신 것”이라며 “두 아들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볼 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대 목사의 장남 김성수 씨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던 것 감사하다. 부모님이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인신기 목사(한사랑성결교회) 사회로 열린 예배는 박정희 목사(OC여성목사회장)가 기도했으며 윤길상 목사가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 중(요 1:14-1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영선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 장근성 목사(연복회전 회장)가 축사했으며 방대비 목사(좋은소리교회)가 축가를 불렀으며 한기형 목사(CBS기독교방송 사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김영대 김순옥 목사부부 자서전 출판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동양선교교회 2022 가을말씀사경회에서 차준희 교수가 설교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 2022 가을말씀사경회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스위치”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2022 가을말씀사경회를 반석위에 세운 교회라는 주제로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차준희 목사(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했다. 김찬우 목사 사회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13일(주일) 11시 예배는 ‘풍, 기, 도의 영성(시 13:1-6)’이라는 제목으로 차준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차준희 목사는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이다. 찬양시와 탄원시로 되어있다. 고난 당할때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차 목사는 “시편13편은 개인탄원시의 교과서이며 3천년의 영성이 담겨있다”고 말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 첫째 반드

시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한다. 둘째, 기도 끝날 때 현재형으로 끝내야 한다.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스위치이다.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한다. 기도는 기도로 배우는 것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기도는 대화라기보다 사귄다. 하늘과 땅이 실제로 만나는 핵심장소중의 하나가 기도이다. 하늘의 것을 땅으로 땅의 것을 하늘로 올리는 핵심적 장소에 내 몸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기도는 길을 만든다. 내 몸이 기도하는 몸이 되어야 한다. 기도는 배우는 것이다.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과 사귀어 마지막 순간 찬송하며 기도하는 몸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이어 결단의 기도를 드린 뒤 차준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고 박재훈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음악회 열려

고 박재훈 목사 소천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쉐비취한인합창단(단장 이상남 장로) 주관으로 13일(주일)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황영숙 사모는 “박재훈 목사님이 오늘 추모음악회 모습을 보고 계신다면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며 “추모음악회를 열어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모음악회 준비위원장 백경환 목사(쉐비취한인합창단 지휘)는 “1972년 박재훈 목사님과 만나게 되고 오페라 ‘에스터’ 연습지휘와 합창지휘를 했는데 그때부터 박 목사님과 교제를 해왔었다”며 “하지만 작년 8월2일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전해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백 목사는 “지난 3월 음악 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고 박 목사님 100회

생신이 11월에 있으니 그때 추모 음악회를 하지는 뜻을 모아 음악회를 열게 되었다. 이번 음악회에 기쁘게 출연을 허락해주신 모든 분들과 음악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고 박재훈 목사 생전 인터뷰 영상소개와 이동진 목사(성화장로교회) 사회, 그리고 송정명 목사(가도)로 시작된 음악회는 쉐비취한인합창단(지휘 백경환), 세리토스선교교회 찬양대(지휘 김연주), 캠프칼(지휘 이수정), 남가주동신교회 성가대(지휘 권연대), 라크마렘 코랄(지휘 윤인상), 소프라노 이영주, 박순혜, 김미경, 테너 전승철, 바리톤 권상욱이 출연하여 고인이 작곡한 찬양곡을 불렀다. 이날 음악회는 고인의 아들 박기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소망소사이어터 ‘바람꽃’ 출판기념회

소망소사이어터(이사장 유분자)에서는 창립 15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여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구술 자서전 ‘바람꽃-The Flowers’를 출간했다. 책 한 권에 평범한 사람들의 다양한 인생 여정이 펼쳐져 한국의 근대사와 한인 이민 역사가 녹아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진 ‘바람꽃-The Flowers’의 출판 기념회는 12월 3일(토) 오후 5시 30분에 세리토스의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있을 예정이다.

▲ 문의 : (562)977-4580

미주복음방송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는 ‘준비된 시니어가 차세대다!’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을 준비했다. 이 목사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현상은 오늘날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민교회의 주춧돌이 되었던 이민 1세대가 이제는 교회의 시니어 세대가 되고 있다. 교회는 이제 그 시니어 세대들의 깊은 신앙과 풍부한 경험에 의한 잠재력을 교회사역의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바라보고 격려하여 교회 사역현장에 재현신하도록 건언해야 할 때”라고 본 방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 방송은 ▲11월 12일(토) 오후 3시 오명찬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김종구 목사(오렌지하운티제일장로교회) 출연, ▲11월 19일 이상훈 박사(미성대학 교장), 우영호 목사(동부사랑의교회), 김지훈 목사(동양선교교회) ▲11월 26일 이정엽 목사(LA온누리교회), 김용환 목사(남가주동신교회 시니어교구 담당), ▲12월 4일 박영호 목사(포항제일교회)가 각각 대담자로 출연한다. 재방송은 GBC 유튜브채널에서 청취가 가능하다.

▲ 문의: (714)484-1190 / am1190@kgbc.com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예배

“이민자들의 눈물과 한숨, 기도가 담겨진 우리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담임 한의준 목사) 창립 119주년 기념예배가 6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한의준 목사는 “119년 동안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119년전 하와이에 믿음의 선조들이 사망수수 노동자로 왔다. 조국을 떠나 이곳 하와이에 정착한 태초 이민선조들이 이곳에서 일할 때 그들의 가슴속에 외로움, 서러움, 눈물과 고통이 내재하게 되었다. 이민자들의 눈물과 한숨과 기도와 소망이 담겨 이곳에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의준 목사 사회로 열린 11시 예배는 교회창립 119주년 기념 축하 및 कै릭커팅 시간을 가졌으며 남문성 장로가 대표기도 했다. 이날 한의준 목사가 ‘믿는 우리가 행복한 이유(롬 8:1-7)’라는 제목

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은 세상적 성공에 기댄 것이다. 돈, 권세 등을 취할 때 행복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침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며 채워도 채워도 목마름이 지속되고 갈급함이 지속된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참된 행복은 세상 복과는 다르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째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로 행복한 자녀 되기를 축원한다. 우리교회 모든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 결단찬양을 부른 뒤 한의준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오렌지한인교회 창립 46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를 마치고 임직받은 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렌지한인교회 창립46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예수님께 붙잡혀야겠다는 고백이 이어지길..”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 창립46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가 13일(주일) 오후 2시에 열렸다. 피세원 목사 사회와 홍영래 권사 올겐 연주로 시작된 임직식은 서약, 안수기도, 공포, 임직패 수여로 이어졌다. 코 풀 목사(CRC 남가주노회장)가 권면했으며 소노로싱어즈가 특송을 불렀다.

이날 설교는 문상명 목사(CRC 한인회장, 생명샘교회)가 ‘새롭게 하소서(롬 12:1-3)’라는 제목으로 “임직은 교회일꾼을 뽑는 것이다. 기도를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한걸음 더 성장하는 동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

했다. 또한 “바울의 소원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임직 받는 분들이 예수님께 붙잡혀야 하겠다는 고백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음세대를 위한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엘리샤 박(9학년), 브랜든 박(11학년) 빅터 기(12학년) 세라 최(12학년)에게 장학증과 장학금이 수여된 뒤, 피세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임직받은자는 다음과 같다. △장로장립: 이종현, △안수 집사장립: 정상섭, 최인철, △권사임직: 김은실, 이영리. 이은애

(박준호 기자)



고 박재훈 목사 소천 1주기 추모음악회에서 쉐비취한인합창단이 찬양하고 있다

피종진 목사 11월 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 영어 연구원 동문회 사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제 227차 해외성회 (227th Overseas Assembly)

1(화) 인천공항 KE703 09:55분 출발 - 일본 나리타 12:20분 도착
1(화)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총회신교회 (학장 정성대만 목사)
2(수)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감별심회(원장 정성대만 목사)
(원장 김태실 선교사 (90) 6535-9118
3(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영 노숙인 목요정기전도집회
(준비위원장 김태실 선교사 및 일본선교회)
4(금) 일본 (JAPAN) 동경 나리타 사랑의교회 (Rev. Stepan Jung)
5(토) 일본 나리타공항 KE 704 14:00 출발 -> 인천공항 5(토) 16:50 도착

7(월) 저녁 서울 위대한 약속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8(화) 오전 한국기독교회관 느헤미야부흥사회 (대표회장 김승희 목사) 010-7522-0236
9(수)~10(목) 저녁 시흥 사랑의빛교회 (남보석 목사) 010-7220-0733
10(목) 오전 (재미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사단제 총연회 (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함영훈 목사 대표회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10(목) 오후 서울행복한교회(윤창구목사) 대화장 김기성 목사 010-5270-7105
12(토) 오전 안산 성암교회 (이준식 목사) 010-4939-0675
14(월)~16(수) 진안 임마누엘 남천수양관 (원장 이공순 목사) 010-8623-6391
부목 박복주 목사 010-4132-1191

17(목) 서울 해병대 사령부교회 (대화장 박종철 목사) 010-2568-9006
18(금) 안양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 010-3710-5608
21(월) 저녁 충주미사리중앙교회 (문동철 목사 서순만 목사) 010-7136-7669
21(월) 오전 대구대 엘림 수양관(원장) 김우경 목사 010-8898-9141
22(화) 오후 서울대학교 ABK 총동문회 문화행사 장소 서호미술관
23(수) 오후 오산리 기도원 (원장 김원철 목사) 주최 Good TV 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오영대 목사 총괄 부부장 김용희 목사) 010-7291-0291
서울신학교학장(김종환목사)월드기독교총연합회(원장정기총회) 제227차 비기독교 및 복지위원회 발대식(대표고은 피종진목사 대표총재 정도숙목사, 이사장 정진희목사)010-7567-8291
28(월)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경서영 목사) 010-7220-0733
29(화) 오후 부산 금호발전대 (원장 강은숙 목사) 010-3670-899930
(수) 오후 성남 은총교회 (노규연 목사) 010-3765-0658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asca.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Fax. 02)401-7770



예장통합 향후 10년 정책 방향은 '생명목회'

제107회기 총회 정책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가 향후 10년 교단의 방향성을 '생명문명·생명목회'로 선포했다. 예장통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7회기 총회 정책협의회'를 열고 총회 임원, 상임부와 위원회,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예장통합은 10년 단위로 총회 장기 정책을 추진해 왔다.

생명 살리기 운동 10년(2002~2012)'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운동 10년(2012~2022)'에 이은 '생명문명·생명목회 10년(2022~2032)'은 '생명'이라는 기본 주제를 이어가면서 지난 20년간 해 온 운동을 통합 결산하는 의미로 진행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확산, 기후와 환경 위기 등을 겪으며 환경친화적 공공정책을 마련하고 생태 영성을 고양하는 일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

미다. 이날 정책 해설을 맡은 노영상 총회한국교회연구원장은 "현재 한국교회는 경제 양극화, 저출산과 초고령사회, 세속화와 탈종교화 등 각종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리 교단이 20년 전 생명을 살리는 '과제'에 초점을 맞췄고 10년 전에는 생명운동을 추진하는 '공동체'에 중점을 뒀다면 향후 10년은 생명을 위한 예배 증진 봉사 교육 등 신앙적 행위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일에 방점을 두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예장통합은 갈등과 분열, 한반도 및 세계평화, 기후 위기, 교회의 실추된 공적 이미지 등을 10대 과제로 두고 '탄소제로 운동'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는 상상 생명공동체 강화 운동' '생명 사랑을 가르치는 기독교교육 운동' 등을 전개한다. 이순창 예장통합 총회장은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을 둔 생명문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총회와 노회, 지역 교회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척교회 목회, 새 길을 열자" 선후배 목회자 모여 지혜를 나누다

한섬공동체 '패스트레이커의 밤'

남광현(권관 나사렛교회) 목사는 2008년 패스트레이킹 세미나 참석을 계기로 목회 인생의 변화를 맞이했다. 그는 13일 한섬공동체(대표 김석년 목사) 주최로 서울 서초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열린 '패스트레이커의 밤'에서 "(세미나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목회 비전을 꿈꿀 수 있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에서 이 행사를 마련한 한섬공동체는 '작은교회를 살린다' '쉬지 않는 기도

를 살린다' '기독교문화를 살린다'는 3대 사명을 품고 2020년 설립됐다. 앞서 김석년 목사는 지난 23년간 '패스트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통해 2000여명의 개척 목회자를 세우고 후원자들과 비전을 나누고 있다. 이날 행사는 예배와 간증, 음악회 등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출신인 한기재 목사는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에서 '쉬지 않는 기도와 나의 목회'라는 제목으로 간증

을 나눈 신기형(이한장로교회) 목사는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언급했다. "교제는 단지 사람을 만나고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기도 안에서 같은 소원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들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와 손경호 목사(봉일성결교회)가 격려사와 축사로 함께했다. 작은 음악회는 패스트레이킹 싱어즈와 일렉트로닉 바이올리니스트 도은혜씨의 연주로 꾸며졌다. 내년 비전도 공개됐는데, 올해 지역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한섬공동체는 개척교회를 살리는 워크숍과 기도학교 개최, '패스트레이킹 싱어즈'를 통한 문화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예배의 모델을 제시하는 '영문하에배'(영성과 문화가 하모니를 이루는 예배)도 매주일 드리고 있다. '동행365' '시편365' 등 출판 사업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병원은 전도의 황금어장 결실 위해 원목 지원 넓혀야"

제12차 병원선교대회 여는 최연현 한국기독교사회 회장

"코로나로 병원안과 병원 심방이 어려워지면서 원목사역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원목이 재정에 구애받지 않고 전도하고 환자를 영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제12차 병원선교대회를 여는 최연현(64) 한국기독교사회장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인터뷰를 갖고 대회 취지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다. 대회는 오는 19일 오후 3~7시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병원선교의 현황을 공유하고 병원선교, 특히 원목사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목은 병원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다. 병원 소속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 대개 자발적, 자비량으로 사역한다. 현재 한국원목협회에 소속된 전담 사역자는 800여명. 이 중 5%만이 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고 있다. 나머지는 개별적인 후원에 의존한다. "병원은 전도의 황금어장입니다. 몸이 아프면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의지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면 쉽게 받아들이며 예수를 의지

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어느 선교현장보다 열매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관심과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원목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사역에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최 회장은 "군, 경찰, 재소자, 외국인 노동자는 큰 교회 또는 교단 차원의 각종 위원회가 조직돼 상시적, 체계적으로 선교를 돕고 필요한 재정도 지원한다"면서 "병원사역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선 병원선교의 전반적인 실태가 다뤄진다. 서울경인강원원목협회장 최병우 목사가 2021~2022년 병원선교 상황을 보고한다. 또 정재동 이경희 목사가 명지병원, 금강병원, 고대안암병원의 병원선교 사례를 발표한다. 한국기독교사회 이사 김성록 장로가 간증한다.

이러 최 회장을 비롯해 서울기독교사회장 박도준(서울대병원) 교수, 전 한국기독교사회 회장 백광을(한양대병원) 교수가 병원선교 촉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에 원목의 재정지원 활성화 방법이 포함된다.

한국기독교사회는 원목사역에 큰 관심을 두고 재정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11차 병원선교대회 때 "원목은 의료인들이 먼저 도와야 한다. 의료인이 원목을 돕는 데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원목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 결과 원목 16명에게 각각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를 확대해 교회, 단체, 개인도 십시일반 후원할 수 있도록 월 1만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대회를 통해 10명 추가 지급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우리 의료인과 함께 헌신할 교회, 단체, 개인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회는 의료인뿐 아니라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이들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김학우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남서울은혜교회 박완철 목사가 축사한다. 남서울은혜교회 선교위원장 강기홍 장로, 부위원장 박진선 집사가 각각 기도와 사회를 맡는다. 같은 교회 안수집사인 최 회장은 "대회를 준비하는 한국기독교사회 회원들은 물론 병원선교에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남서울은혜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학생 '탈종교·탈교회화' 심화됐다

무종교인 67.7%→73.7%, 포스트모던 시대 흐름 영향

국내 대학생들의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크리스천이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대학생, 이른바 '가나안 대학생' 비율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와 교회가 경제적인 측면 등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양성과 개별성이 중시되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흐름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원복음화협의회(학복협·회장 최이우 목사)는 15일 전국 대학생 1548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무종교인 비율은 2017년 67.7%에서 지난 8월 기준 73.7%로 6%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종교를 완전히 포기하고 싶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7.8%에서 13.7%로 5.9%포인트 늘었다. 무종교 학생들 중 8.7%만이 향후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유출 비율이 유입 비율보다 높

아 '탈종교'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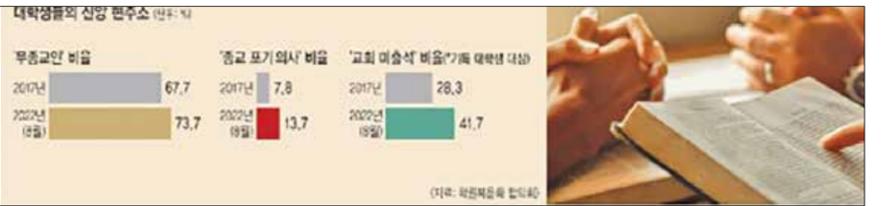
'교회 출석'으로 가늠해 본 기독교 대학생들의 신앙 성숙도는 어떨까. 기독교 대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 여부를 묻은 결과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대학생' 비율은 지난 8월 기준 41.7%로 2017년(28.3%)보다 13.4%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도 교회 미출석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출석하지 않는 대학생들 중 26.4%가 '코로나19 발생 후부터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학생들의 탈종교·탈교회화 현상이 심화되는 이유는 종교와 교회가 대학생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 교수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취업, 즉 경제 문제다. 반면 종교나 교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지 못하고 좁은 의미의 신앙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이는 대학생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학복협 조사에서 대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스트레스 요인은 '취업'(77.6%)이었다.

대학생들의 탈종교·탈교회화가 포스트모던 시대에 나타나는 글로벌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송재룡 경희대 종교사회학과 교수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다양성과 개별성을 중시한다. 이러한 시대에 종교는 상대적인 우위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절대적 진리,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제도를 잃어버렸고 대학생들도 시대 흐름에 영향을 받아 종교와 교회를 잘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설문 결과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종교나 교회가 대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유입하려면 대학생들의 삶과 신앙을 별개로 두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의 신앙이 더 크게 흔들린다. 기본적인 여건이 충족돼야 신앙 생활도 가능하다"면서 "교회 내부에 청년 일자리 관련 연구모임이나 세미나 등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지역 복음화에 협력기로

세계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상복 목사, 전용태 장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이사장 이규현 목사, 대표회장 주승중 목사)가 15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국내외 복음 전도사역인 '성시화운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노량진 기독교텔레비전방송국(CTS TV) 9층 KWMA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KWMA 강대흥 사무총장과 정용구 선교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와 성시화아카데미 학장 김철해 박사 등이 참석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이날 협약식에서 두 기관이 하나 남게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부

적으로는 '국내외 성시화운동을 위한 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평신도 선교 자원 동원을 위한 협력'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사항 협력' 등이다.

김철영 목사는 협약식 인사말에서 "그동안 KWMA는 세계선교를 위해 앞장섰고,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역시 전 교회가 하나가 돼 모든 시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에 노력해왔다"며 "두 기관이 이번 기회에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대흥 사무총장은 "우리 기관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250만명의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타겟 2030',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며 "기존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외

국에서 들어와 한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운동이 성시화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내 이주민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사역에 우리 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다른 단체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귀한 분이 된다고 생각해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 여러 상황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있다"며 "이럴 때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연합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많은 외국인인과 시민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가치 있는 협약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ission 선교의 창 (20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1월은 감사의 달이다. 왜 일까? 비단 청교도들의 행적 때문만은 아니다. 그간 인류는 1760년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1만 여년을 농경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왔다. 북반구 농촌에서 11월은 가을의 끝이요 겨울의 시작이다. 농부들은 이 때 약간의 여유 속에서 햇곡식을 먹으며 일 년 농사를 돌아보게 된다. 현대 21세기는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에 들어와 있다. 하지만 인간은 문명과 상관없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낙엽 지는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계절의 여울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악보에서의 심표처럼 바쁜 일손을 멈추고 한 해를 계수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나? 진정한 언약백성이라면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이다.

1. 추수 감사절의 유래

이 절기는 영국 제임스(James) 왕과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던 청교도(The Puritan)들로부터 시작되었다. Wikipedia.org/wiki 자료에 의하면 “승무원 약 30명에 102명을 태운 180톤짜리 메이플라워(May Flower)호는 1620년 9월 16일 잉글랜드 플

리머스 항구를 출발하였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11월 2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州)의 케이프 코드(The tip of Cape Cod)에 임항하였다.” 배는 수리를 거쳐 12월 21일 마침내 플리머스(Plymouth)항에 상륙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신앙대

2. 감사절의 선포문

청교도들은 정든 고향과 본토 아버 집을 버리고 사선을 넘어 이국땅에 정착을 했다. 그 첫 해 씨를 뿌리고 얻은 수확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어떠했을까? 극한 고통과 죽음의 고비에서 그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이다. 인간은 감사의 역량에 따라 행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감사(Thanksgiving)는 말로 Thanks 한 후에 뭔가를 Giving하는 것이다.

로 가정보다 먼저 회중교회를 세웠다. 이로써 그들은 황금보다 귀한 신앙자유와 소원을 성취할 수 있었다. 오늘날의 미국은 바로 이 청교도 신앙의 뿌리 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당시 불모지에 도착한 그들은 흑한, 굶주림, 풍도병, 맹수의 공격 등으로 많은 이가 죽고 49명만이 살아남았다. 그러나 개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씨를 뿌려 첫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다. 청교도들은 추수한 햇곡식과 채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인디언들을 초청하였다. 인디언들은 구운 칠면조와 호박과이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두 음식은 추수감사절의 대표적 요리가 되었다. 감사의 축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우리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순례자들이 정착하는 지 3년째, 주지사격인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의 감사절 선포문이 새롭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옥수수과 밀과 강낭콩과 과일과 채소를 풍성히 내려 주셨고, 또한 사냥감이 풍성한 날고기와 조개가 있는 바다를 주셨도다. 또한 우리를 이민족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흑사병과 각종 질병에서도 목숨을 지켜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들의 행적관인 나는 1623년 곧 그

대들의 순례자 일행이 터전에 상륙한 지 제3년의 11월 29일 목요일에 거기서 그대들의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며, 이 모든 축복을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선포하노라.”

3. 감사가 없는 현대인

2022년, 올 해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온 지 402년이 흘렀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생활환경과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가 난다. 인류역사상 이렇게 풍요롭고 쾌적한 때가 있었던가? 21세기 현대인들은 놀라우리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문명의 이기를 향유하며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감사가 별로 없다. 예배당을 그렇게 많이 들락거리면서도 얼굴은 굳어있고 가슴이 메말라 있다. 동네 어귀를 배회하는 주인 없는 개(Dog)라도 썩은 감자를 사들인 주면 사람을 알아보

와 허물로 사망의 뜻에 갇힐 수 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 피값으로 대속하셨다.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 보다 더 큰 감사 제목이 있을까? 둘째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이다. 만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셋째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 우리가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쓰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영광이 아니다.

5. 감사에 대한 묵시

미국의 연설가이자 작가인 지글러(Zig Zigar)는 “나는 감사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고 했다. 감사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아첨이 아니다. 이는 하나의 신앙고백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은 일상에서 감사가 성품화되도록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어려울 때 감사하지 않으면 더 낫은 환경이 주어져도 감사하기 어렵다. 오늘 여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기적적인 일을 기대하기보다 매일 일상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신앙생활의 승리란 결코 자기 목적달성이나 정복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를 할 수 있는 믿음 그 자체이다.

6. 맺음 말

영국의 스피켄 목사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취 주신다.”고 했다. 감사의 계절이 또 우리 앞에 다가왔다. 우리는 의식을 과거로 환원해 초기 미국 땅을 밟은 청교도들의 믿음과 실상을 회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 추위, 배고픔, 질병, 인디언의 위협 등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 그러한 에도 청교도들은 믿음으로 도전했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만일 그들의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떠했을까? 이 뜻깊은 때에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감사 제목들을 세세히 열거해 보면 좋겠다. 나아가 하나님과 가족 및 이웃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 난 감사(Thanks)를 행동으로(Giving) 표현해보자. 그러면 은혜가 감절로 임할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4. 감사해야 할 이유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이다. 주님께서는 죄

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는 행복의 원천인 동시에 행복의 열매가 된다. 감사를 계속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일으키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사람이다. 감사를 순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감사가 없는 생활은 불행하다. 삶이 무미건조하다.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 감사가 없는 구도자의 삶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마틴 루터는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원 스토리 23강 / 레위인, 나실인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민 1-12장) (3)

홍요셉 선교사 (P.국, 중동선교전략가)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약 1년 동안 머무르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란 광야로 갑니다.(민 10:11,12)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그들의 군대를 따라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를 선투로 나아갔 습니다.(민 10:11-28)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었고(민 10:17) 고탓인은 성소의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

불신자들이 본격적으로 터집니다. 먼저 성경은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시 여호와와 불을 그들 중에 불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 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민 11:1,2)고 합니다. 이어 성경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모세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기쁘지 않습니다.(민 11:10) 그리고 모세도 난리가 납니다. 모세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내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

하나님이 일단 모두를 진정 시키십니다. 탈진이 되어버린 모세, 엘리야처럼(왕상 19:4) ‘나를 죽여주세요’ 외치는 모세에게는 짐을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우십니다.(민 11:16,17)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이라도 한 달 동안 싫증나게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하십니다.(민 11:18-20) 비록 모세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

니하느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민 12:1) 언뜻 보기에는 모세는 율법을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연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출 34:15,16/참고 신 7:3,4)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혼인을 금지한 것은 이방인 전체가 아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 다. 가나안 입성 때 등장하는 가생 라합, 보아스의 아내였던 룛도 모두 이방인들이요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사방으로 두 규빗 정도를 내리십니다.(민 11:31) 백성들은 신이 나서 메추라기를 모으고 모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큰 재앙으로 치심으로 그 불평과 원망의 대가는 특 특히 치르고 맙니다.(민 11:32-35) 광야는 거처하는 곳이지 누리는 곳이 아님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중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

“광야는 거처하는 곳이지 누려야하는 곳은 아니다” “만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정욕까지 채울 수는 없다”

습니다.(민 10:21) 하나님의 언약계는 3일 길에 앞서가며 실 곳을 찾았고(민 10:33) 언약계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흠시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민 10:35) 하였고 언약계가 실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민 10:36) 하였습니다.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낳았나이까

이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약 1년 6개월의 시간을 잘 버텼 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도 여기 저기, 이곳 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만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민 11:4-6)고 합니다. 만나는 통과해야 하는 ‘광야의 음식’이었지(민 11:7-9) 풍요의 땅 ‘애굽의 음식’도, 이후 들어갈 ‘가나안의 음식’도 아니었습니다.(수 5:12)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정욕까지 채울 수는 없 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귀로 듣고 흘렸지 마음으로 받아 담아두지 못한 것입니다.

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젓 먹 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민 11:11-15)라고 합니다. 아직은 모세도 up and down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으나 내가 이제 보리라

행했기 때문입니다.(왕상 11:1-1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세의 첫번째 부인인 심보라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구스 여인을 취했을까요? 정욕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욕의 문제라기 보다는 유대의 머느리 다말의 행동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 표적 삶을 사는 모세를 통해 향후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복음을 예표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 간음했던 여인과 함께 하심으로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비방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을 빌미로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은(민 12:2) 모세를 원망하므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출 16:1-12) 모세를 비방함으로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부르셔서 모세의 편을 드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징계하십니다.(민 12:4-10)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미리암을 회복시키십니다. 욕의 기도로 욕의 세 친구를 받아주시는 장면과 같습니다.(욥42:8)

살펴본 것과 같이 모세 역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어디 하나 온전한 구석이 없는데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의 사랑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fa@gmail.com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감사의 글

신동이를 주신 하나님, 찬양!

‘축하합니다. 수태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의사가 나가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신동이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와 전 남편은 세 번째 보는 날이 결혼 날이 된 커플로 서울에 있는 장로집안의 딸과 엘에이에 있는 목사님 가정의 아들이 혼사를 맺게 된 경우입니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신부였던 딸과 딸의 아버지가 생겨 날게 되었지요. 그리고 ... 똥도 안 된 얘기를 싸안고 시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쩌자고 겁도 없이 나왔냐’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언어가 같고 피부색 같았지만 서로가 자라난 지역이 수만리 떨어졌고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인지 둘 사이의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만 갔었습니다. 차라리 국제결혼이 이보다는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철없이 교만했던 이유도 있었지요.

10여년, 싱글맘의 세월을 보내던 중, 남편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고, 동시에 아들을 맡아 기르겠다는 제안이 해 왔습니다. 전 남편은 아들에게 잘 해왔으며 새엄마 될 사람 또한 수더분한 사람이라고 들었기에 아빠와 같이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은 환경이 될 것임으로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아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박목월 시, 이별의 노래)” 이젠 내 앞길을 헤쳐 나가야 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혼자되고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간사로 일했었기 때문에 이미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용감하게 재혼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저 역시 삼 년여 동안 기도로 무장하려 했고 마지막 일 년은 온라인으로 선(?)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사람이 나이가 아예 아래로 꽤있는 어진 인상의 대만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짧은 결혼기간이 실패로 끝나고 자녀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 년 반을 교제하면서 점점 좋아졌지만 나의 남편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인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청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꼭 갖고 싶다는 말과 함께!

그때 내 나이 45살. 입양을 하나? 아니면 시험관 얘기를 시도해야 하나? 그럼 어디에서 하는게 좋을까? 미국에서, 대만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등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대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이 대만에서 가정주치의였기 때문에 대만에 가면 생활비를 벌 수 있고 또 시험관시술 비용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나왔기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 일 년 휴학계를 내고 대만으로 향했습니다. 그 곳에 가서 만나게 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똑바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십대의 자녀를 가진 타민족의 여인... 눈에 찰 리가 없었겠지요. 어머니의 차가운 눈길은 어떻게 해서라도 아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를 더하게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험관시술 전문인을 만나러 갔지요. 성공률3%, 그러니까 실패율 97%라고 말하며 ‘결코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정 원한다면 수정란이 자리 잡는 것을 돕기 위해선 체중을 늘려야 하고 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야 되는 만큼 격한 운동을 많이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입에 맞든지 안 든지 그냥 입에 넣었습니다. 살찌는 것은 빼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들 하지만 내겐 마냥 힘들었습니다.

윤은주 집사 (멜리데 교회)

Gym에 가서는 Kick boxing, weight lifting등의 과격한 운동을 쓰러질 듯이 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운동이 끝나도록 쿵광거리던 내 심장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 모든 아픔은 열 달 후 우리들의 공주, 사랑이가 태어나면서 꿈결에 있었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남편은 복학을 했고 숨 쉴 틈 없이 공부하는 와중에도 사랑을 보면 절절 매근 합니다. 내 나이 아직은 아니데 친구들이 ‘신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려면 어떤가..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찢해지는 아들 이야기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들은 새로운 가족들과 잘 지내며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화통화에 AP class를 여러 개 택하다보니 공부 많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꼭 오겠다고 합니다.

아들이 오면 우리들의 작은 기숙사 방에 넘칠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며 큰 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감사의 계절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 셋째 달고 붉게 물든 가을 단풍, 마음 설레며 손꼽아 기다려지는 아이들의 가을 소풍, 모든 열매를 영글어 익게 하는 가을 햇살, 추수할 곡식이 넘실대는 황금 들판의 가을 들녘, 사랑하는 사람과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가을 여행, 한들거리는 코스모스 들판에 묻어나는 가을향기, 정다운 귀뚜라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을밤...

그러나 가을하면 무엇보다도 감사의 계절이 연상됩니다. 모든 것에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가을입니다. 천고마비의 맑은 하늘만 쳐다봐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풍성한 오곡백과는 보기만 해도 신기합니다. 눈부신 가을 태양에 빛나는 형형색색의 단풍잎을 보노라면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솔길을 거닐며 낙엽을 밟을 때 들리는 소리는 그렇게도 정겨울 수가 없습니다. 사색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에 읽는 한 편의 시는 그냥 글이 아니라 가슴에 뿌려진 씨앗과도 같습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지 결코 쓸쓸한 절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낙엽이 외롭게 떨어져 뒹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춤추는 것입니다. 귀뚜라미가 슬피 우는 것이 아닙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가을비가 처량하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지를 적시며 온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내 손은 텅 비어 있다고 뉘그러를 늘어놓는다면 이 가을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의 계절인 가을에 어울리는 감사의 생각을 합시다. 감사의 노래를 부릅시다. 하나님의 뜻은 감사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5:18)

bible66@gmail.com

기독교명저로의 초대

(8면에서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후 2:14) 주님은 우리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모든 더러운 정욕에서 정결케 하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런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5-27)

성령의 공급하심과 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온다.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시이다. 세례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행위로서, 주님이 죄에 대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 죽어 우리의 타락

한 성품을 이긴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으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와 새로운 삶으로 다시 부활하게 됨을 가리킨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못 박힘으로써 일어나는 효능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해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의미한 핵심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탄의 일을 멸하고 성령을 보내 주셔서, 성도들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죄를 죽이셨던 것이다.

* 그리스도의 죽음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의 전제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조건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빌 3:10; 골3:3; 벧전 1:15-19) 실로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

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몸소 느끼시고, 기도하시며 피 흘리셨고, 나중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 그런 주님을 당신 마음 속에 모셔라.

* 죄를 죽이기 위한 성령의 사역

첫째, 성령만이 죄를 깨닫게 해준다. 성령만이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 죽어야 할 악과 죄, 타락, 정욕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해준다. 지혜와 지식은 있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의 활동을 죄로 깨닫지 못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성령만이 주실 수 있다. 실로 성령은 모든 정욕을 죽이기 위해 먼저 죄를 깨닫게 한다. 죄의 숙임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고, 죄에 빠져들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차단한다. 그리하여 영혼들로 하여금 죄를 혐오케 만들고, 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성령만이 풍성한 은혜를 보여준다. 성령만이 우리를 돕기 위해 예비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를 보여준다. 셋째, 성령만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도움을 기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준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내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 1:21-22) 넷째, 성령만이 십자가의 능력을 갖게 해준다. 성령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주고, 죄를 죽이는 십자가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 다섯째, 성령은 성화의 저자이자 완성자이다. 성령은 거룩과 성화를 위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은혜들을 공급한다. 여섯째, 성령만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합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롬8:26)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방편이 된다. younsuklee@hotmail.com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주세요.



(청소년용)



영역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주세요.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기준 (삼상 15:1~11) 찬 315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모든 진멸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 과 짐승의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진멸하지 않고 남겼느냐'고 묻자,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고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

다 낫다." 아주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에 대한 이유를 사울이 실토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즉,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착각하여 백성들의 비위를 맞춰던 것입니다. 불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은 '자기가 기준 되는 생각과 결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기중심'의 생각과 결정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화 상항보다 크신 하나님 (삼상 16:1~13) 찬488장

사무엘은 기름 뿜 병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모든 아들이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오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선택하신 후에 준비시켜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버지 이새에게 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수 숫자에 속지 맙시다 (삼상 17:41~51) 찬352장

블레셋 군사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사람이 40일을 아침저녁으로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돌멩이 다섯 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다윗은 돌멩이를 골리앗에게 던졌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기고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골리앗의 전투력과 외형적인 스펙(사

이즈)에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자'와 '하나님 밖에 선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숫자에 마음을 두면, 숫자가 우상이 됩니다. 요즘은 숫자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매출 규모, 건물의 층수, '좋아요' 숫자, 돈의 액수 등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숫자의 크고 작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거나 낙심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이용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목 목욕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삼상 19:18~24) 찬252장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은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쳐서 사무엘에게로 갔고, 사무엘과 다윗은 나웃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나웃에 있다고 알렸고,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웃으로 옵니다. 그곳에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울은 옷을 벗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오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다윗이 나웃에 숨어있었을 때, 사울이 보낸 전령들과 사

울이 다윗을 잡으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령들 뿐만 아니라 약한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나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금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 (삼상 21:8~9) 찬542장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금방 알아봅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키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라는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체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미친 줄 알고 그를 쫓아냈고, 다윗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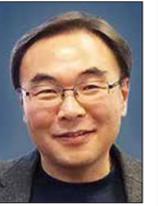
세상의 힘과 가치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큰 장수의 칼이니, 예리하고 육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가졌어도 두렵습니다. 세상의 힘과 가치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요일 5: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토 제 코가 석 자라도 (삼상 23:1~5) 찬240장

사울은 도약을 시켜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다윗히 피하여 다윗에게 사울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일을 알립니다. 이런 와중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순종합니

다. 약 사백 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 코가 석 자'인 상황입니다. 자기 몸과 자기를 따르는 식솔들을 건사하기도 힘에 버겁습니다. 그 상황에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기독교교육 (16)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이민자의 자녀양육

마음에 쌓아 두었던 감사를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새롭게 일깨워줄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감사란 선물이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은 자력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좋은 것들을 말하고, 도움은 당연히 받아야 할 나쁜 것들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이 뜻밖의 장학금을 받는 것은 선물이고, 저조한 성적에도 낙제를 당하지 않는 것은 도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선물이나 도움에 대해 감격해하고 고마워합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에게 보람과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를 자기 자신을 위한 선물이 라고 부릅니다.

감사에는 심리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불안과 걱정 같은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주변에 악의를 가지고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호의를 가지고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은 자긍심을 높여줍니다.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생각과 누군가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신체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어 따라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되어 혈압이 내려가고 불면증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긍심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건강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정기검진, 운동, 음식조절 등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에는 사회적 혜택이 있습니다. 감사는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물과 도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이나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더 큰 동정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합니다. 그리하여 감사는 화목한 사회를 이루도록 기여합니다.

자녀들이 감사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동안 받은 선물이나 도움을 생각해 보고 기록으로 남기면 감사를 잊지 않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친구의 전화같이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 일기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일기 쓰기를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생각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감사 일기장에 내용이 쌓여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감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이나 도움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경우 건강증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축스러워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 표현이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사람으로 인식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쉽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는 짧고 좋은 단어이지만, 진정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공허한 말이 되고 맙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 후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듣는 사람에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대면하여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전화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는 더 쉬운 방법은 글로 쓰는 것입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편지나 카드에 손글씨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디자인에 예쁜 글자들로 쓰여진 광고나 안내지들이 우체통을 매일 가득 채웁니다. 그런 우편물들 사이에서 손글씨로 된 편지를 발견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받는 사람의 기분이 더없이 좋아질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선물이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선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선물이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돈이나 물건을 기증할 수도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활동에 동참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들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들을 후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들의 취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뜻과 일치하는 단체를 찾아 후원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단체를 후원하는데 있어 가장 용이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 내외의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선물이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격하며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혜택을 줍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어야 비로소 감사를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 씁쓸하지만, 때를 놓쳤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실과 기회가 되어주는 감사의 계절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이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혜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감사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이민자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시편 107:1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김현인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Tel.(213) 481-2779
www.srcla.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용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917)968-1024

뉴저지한길교회
담임목사: 이병준

20 Arthur St. Ridgefield Park, NJ

Tel.(201)615-14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인환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4562 211th St.
Bayside, NY 11361

(718) 229-0858
www.nybaysidechurch.com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Cell.(213)745-9191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el.(323)-737-3009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el. (714)646-9259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310)325-402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